



11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국회의원 이정현 동문  
국내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약중인 이정현 동문을 만나 삶과 철학을 들어봤다.

# 동대신문

금주일언

진리는 하나뿐, 둘은 없다. 그 진리를 안 사람은 다. 다투는 일이 없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문들은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숫다니파타 4장 의품 884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500호 2010년 (불기 2554년) 11월 29일 월요일



동대신문 지령(紙齡) 1,500호(號) 기념 휘호(揮毫) 소석(素石) 이종찬 (문과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동대신문 지령 1,500호 기념 휘호를 써주신 이종찬(문과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1956년 우리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해 무애(無涯) 양주동(梁柱東)박사에게 사사(師事)했다. 이후 모교의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문학 연구와 강의에 정진하고 학계 최초로 선시(禪詩)를 연구해 불교문학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등 한문학자로서 큰 자취를 남겼다. 대학을 정년 퇴임 한 후 한문학과 일반 독자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집필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에 짧은 글 60여편을 모아 <옛 시에 취하다>라는 제목의 문집을 펴내기도 했다. 이번 휘호는 정론(正論) 직필(直筆) 중화(中和) 즉 바른 말과 곧은 붓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보도를 통해 대중을 화합시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금주의 동대신문 6면 동대신문 지령 1,500호 기념좌담회 7면 동대신문 애독자 인터뷰 8,9면 동국대학교와 동대신문 변천사 12면 총장 선출 둘러싼 학내구성원 의견 16면 겨울의 귀한 손님, 철새

동대신문 지령 1500호 기념 기획광고

## 60 성상 걸어온 길, 1,500번 내딛은 발걸음

그저 쉽없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니다.  
그렇게 걸어 1,500번의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걸어가야만 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날은 저물고 하늘은 흐리기만 합니다.  
마음을 내고 힘을 더해 한 걸음 더 단겠습니다.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기자 일동

# 동대신문 지령(紙齡) 1,500호 기념 축사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축사

### 시대의 양심으로 생명평화 이끌어가는 젊은 신문 되어 주길



**정련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대신문의 지령 1,5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대신문은 그동안 60여 년 간 지성의 횡보로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동국월보, 동국시보, 동대신문으로 제호를 여러 차례 바꾸고 편집의 형태도 변화되어 왔지만 창간정신만은 중단됨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지령 1,500호를 넘긴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간신문으로서 한 해에 스무 번 낱겨한 발행 횟수를 놓고 볼 때 지령 1,500호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유수(有數)한 명문 대학이 아니고서는 이뤄내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신문은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환갑의 나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같은 오랜 역사를 쌓아온 동대신문은 대학의 발전과 고락을 함께 증언해온 동국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동대신문은 오랜 역사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신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섬심(審心), 신실(信實), 자애(慈愛), 도세(度世) 라는 불교 건학이념을 잘 살려온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신문의 머리를 장식하는 금주일언이나 보리수와 같은 불교칼럼은 이미 연재해온 기간만 40년이 넘는 동국정신의 상징입니다.

또한 동대신문은 불교학 전반과 인문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생명과 평화를 중시하는 학문의 장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대의 양심으로서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을 간직한 많은 언론인을 배출해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도 동대신문의 큰 자랑입니다. 언론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대신문 출신 언론인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를 대표해 동대신문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더 더욱 발전해나가기길 기원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늘 새로움을 잃지 않는 젊은 신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선승이었던 임제(臨濟)선사(禪師)께서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란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루 하루 살아가는 생활의 자리에서 주인답게 생활한다면 서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학내 곳곳에서 취재현장을 누비며 신문을 제작하고 있을 동대신문사의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대신문을 통해 시대의 창을 열어나가고 계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든 학내구성원이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동국인임을 깨닫고 동국의 발전,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지령 1,500호를 펴낸 동대신문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총장 축사

### 대학 언론 순수성 지키면서 아카데미즘 정신 잃지 않아야



**오 영 교**  
동국대학교 총장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우리 <동대신문>에 매우 의미가 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4월 15일 세상에 그 이름을 처음 알린 후,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11월 29일자로 지령 1500호를 맞이했기 때 문입니다.

이런 경사(慶事)는 <동대신문>과 나아가 우리 동국대 전체의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모든 동국가족과 함께 우리 <동대신문>의 지령 1,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호가 발간된 1950년부터 오늘까지 <동대신문>은 격랑(激浪)의 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한국전쟁, 4·19혁명, 6·10민주항쟁 등 변혁(變革)의 한국사회 속에서 대학언론의 긍지와 사명감을 잃지 않았으며, 대학 지성의 발전과 정의 구현에 매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1999년에 인터넷 신문 기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지면(紙面) 발행과 더불어 온라인 매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신문>을 포함한 대학 언론에 대한 도전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웹2.0으로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대안 매체와 블로그 등이 등장했고, 결국 그동안 대학 내 유일한 소통의 장(場)으로써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대학 언론은 조금씩 그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쇠퇴, 개인주의의 만연,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학생들의 대학언론에 대한 무관심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동대신문>의 나아갈 방향은 명백합니다. 밖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및 미디어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안으로는 대학언론의 순수성과 저널리즘 그리고 아카데미즘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만 동국가족과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喚起)하고 애독자로 불러 오기 위한 다양하면서도 혁신적인 변신과 시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 속에서 우리 <동대신문>은 앞으로 동국대와 영원한 미래를 함께하며, 그 어느 신문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대학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령 1500호 발간의 의미는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동대신문>이 존재할 수 있도록 60여 성상(星霜)동안 애써주신 역대 학생기자들과 주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동대신문>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학생 기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창간호 발간사의 사자후처럼 <동대신문>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동국의 역사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축사

### 뿌리깊은 지성과 젊은 감성으로 비판정신 이어 나가길



**이 연 택**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1906년 명진학교로 출범한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사학입니다. 그 안에서 태동된 동대신문 역시 6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학언론의 선두주자로 그 굳건한 존재감에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동대신문 학생기자 및 관계자 여러분.

1500호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쏟아냈을 무수한 땀과 열정에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대학은 과거 진리와 지식탐구의 전당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신문 또한 IT 문화의 한가운데서 과거 지적이며 정적인 뉴스 패이퍼의 면모를 벗어나,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웹진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동대신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뉴스 전달자로서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상을 읽는 지성(知性)이라, 대학 내 올바른 가치 창조와 면학풍토 조성을 선도해 나아가면서 앞서가는 동국인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타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 중에도 특히 잊지말아야 할 것은, 뿌리깊은 지성과 젊은 감성을 갖춘 논조며 비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대신문은 모교가 불교 종단 학교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는 데도 그 임무를 담당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신문 학생 기자 여러분!

과거 동대신문에 몸 담고 학생기자로 활약했던 선배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재 유력 일간지를 위시한 각 언론매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에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며 대학언론창달에 기여하는 기자로서 본분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지적 욕구와 수준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고급화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신문 역시 그들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수렴하여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탄탄한 내용들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21세기, 바로 이 시각 우리가 살고있는 이 현장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증폭, 변화하는 시대상을 조망하고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학 신문이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한 발상법이며 자기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대신문이 더욱 발전하여 학생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동대신문이 22만 우리 총동문과 재학생 간 결속의 가교 역할을 하는 훌륭한 매체로서의 몫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 이 시각에도 취재와 기사 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을 후배 학생 기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동대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 창간연회 및 송년회

2010년 동대신문사가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조출한 창간기념 연회 겸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0년 12월 29일(수)

18시 30분 ~ 21시 30분

2. 장 소 : 앰버서더호텔 오키드룸(19층)

3. 참가회비 : 3만원

4. 연락처 : 02-2260-3494~5

**동대신문사 동인회장 김택근**

## 동국대학교 2011학년도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모바일보안전공 신입생 모집

신입생 전원 전학기(4학기) 등록금 100% 지원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100% 취업 보장  
성적우수자 단기 해외연수 및 학업장려금 지원(8개월)

■ 모집인원: 00명

■ 모집전공: 정보보호학과 모바일보안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11.29(월)~12.15(수) 17:00까지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필기고사, 면접

■ 전형일시: 2010.12.22(수) 10:00 ~

■ 합격자 발표: 2010.12.24(금) 17:00 이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정보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ai.dongguk.edu> 참고

**국 제 정 보 대 학 원**

## 2011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야간) 00명

■ 입학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원서교부·접수 및 서류 제출	2010. 11. 29(월) ~ 2010. 12. 24(금)	- 본 대학원 인터넷접수 : 2010.11.29(월) ~ 12.24(금) / 09:00~24:00 * 인터넷접수시 입학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학사운영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2010.11.29(월)~12.24(금) / 09:00~17:00 - 본 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gslaw.dongguk.edu">http://gslaw.dongguk.edu</a> ) 원서접수 가능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사운영실) ☎ 02)2260-3742, 3227 / Fax 02)2260-3941
전형일(면접)	2010.12.29(수) 17:00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 1층)
합격자 발표	2010.12.31(금) 15:00	개별 통보

■ 학과 및 세부전공

학과	세 부 전 공	응 시 자 격
법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미국법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11년 2월 학위취득예정인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출신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점

- 공직자우대장학, 총장장학, 교직원장학, 승려장학 등 다수 장학혜택 있음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용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60-3742/3227

☐ 팩스 02)2260-3941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http://gslaw.dongguk.edu>

**법 무 대 학 원**

# 동대신문 지령(紙齡) 1,500호 기념 축사

## 동대신문 동인회장 축사

### 시대정신으로, 연꽃 향기로 상생의 평화시대를 ...



김택근

동대신문 동인회장 경향신문 논설위원

동대신문 지령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0년 동안 시대의 담론을 생산해온 저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장구한 여정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저희 동인들은 각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동대신문은 지성의 공간으로서 높은 격조를 지니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월은 실로 향기로웠습니다.

지령 1500호 속에는 전쟁, 독재정치, 민주화 투쟁, 평화적 정권교체 같은 격동의 순간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는 지성들과 민초들의 고뇌와 눈물, 그리고 환희가 들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가파르고 또 숨이 찼던만큼 기자들의 열정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들은 험했지만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은 시대정신을 담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만큼 혼돈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뽑아내야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성찰해 보면 우리 미래는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상생의 사상이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너를 없애야 내가 산다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질 때, 세상은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만드는 한 가운데 동대신문이 자리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나온 날들이 향기로웠듯이 동대신문의 미래도 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에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자들의 열정은 연꽃이 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고고히 피어나는 백합이 아니라 시궁창에서 꽃을 피우려는 연처럼 현실에 피를 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깨어 있어 연꽃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기 바랍니다.

## 교수회장 축사

### 모든 동국인과 함께 나아간다는 사명감 가져주시길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회장 · 북한학과 교수

시간을 고스란히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는 기록을 한다. 기록의 형태 중에서 신문은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

신문은 현재의 일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름이 잘 가리키고 있듯이, 신문은 새로운 사건들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빨리 전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1950년 4월 창간되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 동국인들에게 알리는 동대신문의 1,500호 발간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신문은 모든 사건을 다 전달하지도 전달할 수도 없다. 신문은 나름의 시각을 갖고 알려야 할 사건을 선별하고, 또 사건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자연히 신문은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일을 전달하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다.

신문은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 앞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한다.

비판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해 온 동대신문이 창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려움을 극복해온 동대신문의 용기와 끈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제 1,500호 발간을 맞은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의 역사 자체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동국대학교는 진리 탐구와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근본 사명을 잊지 않으면서도 민족사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한 동국대학교의 역사 앞에 동대신문이 있었다.

동국인들에게 항상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온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위에서 오늘 우리 모든 동국인들은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동국대학교의 역사를 써 가려고 한다.

동대신문이 동국인과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동문 축사

### 1,500호 원숙미 바탕으로 동국인과 세상 잇는 가교 되주길



구상찬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

동대신문사 관계자 여러분. 동대신문의 1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야를 형형색색 물들이던 가을도 이제는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걸 보면서, 많은 이들은 세월의 무상함과 서글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을은 원

숙(圓熟)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내 한창 생명력을 뽐내고 난 뒤, 또 한번 형형색색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을 보면 저는 노련함, 원숙함, 푸근함이 느껴지고, '참 잘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 동대신문의 1500호 역시 '원숙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학 신문으로서 1500호를 발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뚝뚝 뚫린 발행인단과 기자들이 열심히 땀 흘려 우리 동대신문은 어엿한 학생언론으로 자리 잡았고, 젊은 눈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 문화상과 학술상 행사를 통해, 단순 보도기능만을 초월한 학생언론으로서의 개성 있는 역할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적들과 지난 60년의 발간 역사를 보면서, 저는 감히 우리 동대 신문이 학생언론으로서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개최하며 세계 20위권에 드는 선진국가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동대인들은 세계 20위권 선진 국가의 청년으로, 장차 세계의 리더가 될 재목입니다. 리더로서 여러분은 항상 세상과 호흡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500호 발간을 맞은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그 원숙미를 더욱 뽐내면서, 동대인과 세상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 동대신문에 토크하고 이끌어주신 여러 선배님들. 앞으로 동대신문과 대한민국을 이끌 후배님들의 앞날을 위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 직원노조 위원장 축사

### 모든 동국인들의 소통창구로서 역할과 사명 다해주길 기대



변승재

동국대학교 직원노조 위원장

1950년 창간된 동대신문이 2010년 11월 29일자로 제호 1,500호를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대신문은 1,500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의 이념과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신문이 가지는 보도매체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건전한 학풍 진작에 이바지하고, 대학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학술정보지로서 그리고 대학 구성원을 학문적 차원으로

제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1년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그리고 그 속에서의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동대신문은 소통(疏通)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교내외의 변화와 역경 속에서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교 당국과 학내구성원 간 그리고 학내 구성원간의 소통(疏通)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대신문은 더욱 더 열심히 여러 구성원의 고충을 살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발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국 가족이 많습니다. 원거리 지역에 있는 동문들 그리고 가깝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분들. 그분들께도 학교를 알리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신문 구독 범위를 학내 구성원만이 아닌 본교를 졸업한 20만 동문과 퇴직한 교수와 직원에게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동국의 모든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다면 동국 중흥의 길은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하는 그날까지 동대신문이 이를 위한 정보의 등불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더 15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동문 축사

###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춘 새로운 신문으로 거듭나길



황헌

MBC 논설위원실 실장

동대신문이 지령 1500호를 맞았다. 6.25 전쟁 발발 두 달 여를 앞둔 1950년 4월15일 창간 이후 오직 '참된 대학 언론의 창달'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온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온 것이다.

동대신문은 1945년 광복 이후 서울대의 <대학신문>, 연세대의 <연세춘추>, 고려대의 <고대신문>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신문 역사를 이끈 선두 매체로서 시대의 기록자이자 역사의 거울이 되어왔다.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1978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박정희 유신정권과 박정희의 몰락 이후 전두환 정권은 대학 언론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압제 속에서도 동대신문은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지상중계하는 등 이 나라 민주화 과정의 기록자로서의 소명을 다하였다.

대학신문의 지령 1500호가 갖는 의미는 자못 상징적이다. 무엇보다 동국인의 가슴에, 동국을 생각하는 기억속에 동대신문은 그 어떤 강의록보다 생생한 동반자로서의 상징적 위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신문의 역할과 위상이 변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는 기본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대세인 오늘날 대학신문에게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은 필자의 대학생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당시 대학언론은 민주화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분출구이자 동시에 역사의 기록자로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했다. 더 이상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종이신문의 형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대변자가 될 수는 없다. 동대신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학내의 물론 동문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늘 조희수가 상위에 오르는 인터넷 매체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필자가 동대신문 사이트를 간혹 들어가 보면, 다른 어떤 대학신문들보다 접근성, 정보의 다양화, 특히 PDF로 옛날 신문까지를 두루 볼 수 있는 훌륭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흡족한 소회를 가졌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전체 학내외의 구성원이 동대신문을 포럼으로, 시장으로, 때로는 휴게실로 여길 수 있게 보다 다양한 코너와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21세기형 대학신문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뿌듯한 이 마음이 비단 필자만의 것이 아님을 동대신문 제작진들은 자부심을 갖고 인식하길 바란다.

## 총학생회장 축사

### 학우들이 만들어낸, 학우들을 위한 학우들에 의한 신문이 되길



박인우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작년 이맘때 학생 자치기구 선거를 부단히 준비하였는데 어느덧 벌써 임기가 끝나고, 2010년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후회와 아쉬움 밀려드는데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네요.

항상 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날들이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루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열정적인 우리 동국인의 순간을 그리고 알리기 위해 애쓰고 치열하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동대신문 기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학생으로서 학업에도 정진해야하고 동시에 곁에 있는 학우들과 우리사회의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리느라 정말 쉽 없이 바쁜 학우들이 바로 동대신문 기자입니다.

저도 학생회를 시작하면서 보게 된 기자 분들이 항상 열심히 발 빠르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동대신문 기자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만큼 잘 하지 못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동대신문 선배 기자님과 현재 기자 분들이 만들어낸 신문이 무려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들의 치열하고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학내 언론기구인 동대신문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0호까지 올 수 있게 청춘을 바친 분들에게 한명의 학우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학우들이 만들어낸, 학우들에 의한, 학우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번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과의 소통 · 사업홍보 부족 지적돼

## 2010 총학 활동 설문조사 결과 ... 사업은 '보통' 소통은 '부족'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총 12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학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實施)했다.

이번 설문결과 총학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학생들과의 원활한 교류·소통과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이다.

특히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圓滑)하지 못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난 2009 총학에서도 지적(指摘)돼, 총학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이 진행했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적 평가에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총학생회 예·결산 공개 사업이 소통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지(支持)를 얻었으며 학원 자주 분야에서는 학과 구조조정 반대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복지, 문화사업, 사회참여활동분야에서는 각각 시협기간 간식나눔사업, 시네마데이, 대학생 공동행동 사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총학의 사업들이 '학생 권리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학우들이 참여하는 사업 만들기'라는 기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89%의 학생들이 '부합한다고' 느끼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0 총학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총학의 문제점으로는 '총학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학생들의 관심부족' 등 사업 홍보 부족과 학생들과의 소통 부족이 지적됐다. 앞서 지적된 문제 외에도 '총학의 학사 문

제에 대한 편파적 견해(見解)', '부족한 활동성과', '소수 학생을 위한 사업과 행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으로 총학이 등록금·취업·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학사행정과정에서의 학생권리 신장(伸張) 등 교육문제 해결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한편, 설문지는 △총학에 대한 전체적 평가 △각 분야별 사업 선호도 △활동의 기조 부합 여부 △학사행정 이의제기활동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총학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2010 총학의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의 총학에 바라는 점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안신정 수습기자 jeky1@dongguk.edu

# 총학 · 단과대선거 오늘(29일)부터

## 내달 2일까지 각 단과대 건물 로비에서 투표

2011학년도 중앙기구 및 단과대 총학생회 선거(選舉)가 오늘(29일)부터 4일동안 학내 곳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명진관 등 각 단과대 건물 로비에 비치된 총 10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엔 6시까지만 투표가 진행된다.

단과대 학생회 개표(開票)는 2일 6시 투표 마감 직후 각 단과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된다. 3일 자정부터는 본관 중앙당으로 이동해 중앙기구의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기구 및 단과대별 정·부회

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학총회=권기홍(법학4)-김무성(교육3) △총학생회=이예림(정보통신2)-이은화(불교미술2) △졸

업준비위원회=김동규(컴퓨터공학3)-주현지(통계학3) △문과대=조승연(윤리문화4)-진기훈(국어국문4) △이과대=전미정(반도체과학2)-미정 △법과대=곽호남(법학2)-최원혁(법학2) △사과대=최장훈(정치외교3)-최아라(식품산업2) △경영대=황재웅(경영3)-이재희(경영학부1) △공과대 기호1번=이현재(기계로봇에너지공학2)-이규호(컴퓨터공학3), 기호2번=강현구(산업시스템공학3)-이태훈(전자공학3) △사범대=이희정(역사교육3)-남보라(국어교육3) △예술대=김세연(문예창작2)-최지수(불교미술3)이다.

이 중 졸업준비위원회와 공과대는 경선(競選)으로, 나머지 단위는 모두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치러진다.

# 수시 2차모집 최종 경쟁률 44.35대 1

## 영어영문학부 69.5대 1로 최고·12일 합격자 발표

우리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 2차 전형으로만 모집했으며 영어영문학부가 6명 모집에 417명이 지원해 6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수시 2차 모집 최종 합격자발표는 12월 12일 본교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 2차 전형으로만 모집했으며 영어영문학부가 6명 모집에 417명이 지원해 6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수시 2차 모집 최종 합격자발표는 12월 12일 본교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취업지원센터, 진로 · 취업상담 실시

## 내달 4일부터 쿼텀 리더쉽 프로그램 등도 시행

취업지원센터가 이번 주부터 매주 수, 목, 금요일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상담을 진행한다.

수요일은 진로문제 외에도 대학 생활 전반에 관한 소셜코칭을 전문 상담원에게 받을 수 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취업과 인턴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이메일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는 오는 4일부터 '쿼텀 리더쉽 멘토 리더쉽 프로그램(이하 쿼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원래 쿼텀 프로그램은 108리더십에게만 시행하던 프로그램이나, 오는 4일부터는 3,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쿼텀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정규 교양수업으로 시행하거나 방문접수를 통해 상담시간을

# 우리대학, 각종 경진대회에서 다수 입상

## 공과대와 이과대 학생들의 약진(躍進) 두드러져

우리대학 학생들이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분석(分析) 능력 평가전인 'SAS 마이닝 챔피언십'에서, 지난 10일 우리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우리대학 전원배(산업공 대학원), 박우용(산시공3), 김세종(산시공3) 학생에게는 대회 최고상의 영예와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로 8회 째를 맞는 'SAS 마이닝 챔피언십'은 우수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발굴(發掘)과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150여 개 팀의 학생들이 참가해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한 통신사의 고객 이탈(離脫) 방지 예측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수행했다. 한편 이번 'SAS 마이닝 챔피언십'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SAS코리아와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또한 '2010 특허 전략 유니버시티 아드 대회'에서도 우리대학 학생들의 활약(活躍)이 두드러졌다. 이 대회에서 우리대학은 우수상과 장려상 두 개 등 총 세 개의 상을 휩쓸었다. 이과대학 위형용(물리4), 조창용(물리2) 학생은 'RFDI·USN 관련 특허' 부분 연구를 통해 수상의 영

예(榮譽)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전수현(물리4), 서동혁(물리4), 문지영(물리3) 팀과 강성민(물리4), 민경주(물리4), 임한솔(물리3) 팀이 각각 'Roll To Roll 방식의 태양전지'와 'Touch Screen' 관련 문제 수행을 통해 본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전수현 학생은 "강태원 교수의 지도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박경준 교수 불교학연구회장에



박경준(불교학부) 교수가 불교학연구회 신입회장에 선출(選出)됐다. 박경준 교수의 임기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2년 동안 회장직을 맡게 됐다.

### 박명관 교수 한국생성문법학회장에



박명관(영어통번역) 교수가 한국생성문법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생성문법학회는 자연 언어의 통사구조 현상을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다.

# 동악로에서

##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호시우보(虎視牛步)

"많은 학생들이 동대신문 발행일에 동대신문을 정독한 뒤 토론을 하곤 했다." 지난 25일 기자가 만나본 제18대 국회의원 이정현(정의85)은 동문의 말이다. 이정현 동문은 "예전에 동대신문은 대학언론을 대표하는 매체(媒體)였다"며 동대신문에 대한 추억을 회상했다.

동대신문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며 동국인과 함께했고, 어느덧 지령 1500호를 맞이하게 됐다. 학내구성원과 함께해온 동대신문이 1500호를 맞이한 만큼 학내구성원들 역시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진환 대외기획팀장은 "동대신문은 오랫동안 교내소식을 잘 분석해 대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평소 생각해오던 동대신문의 위상을 밝혔다.

또 법인사무처의 위한립 부장은 "나는 열렬한 구독자"라며 "예전에 비해 기자수는 줄었지만 신문의 내용은 예전보다 더 다양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내부회의에서도 동대신문은 하나의 지표(指標)로 작용한다"며 동대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동대신문에 아쉬움을 드러낸 구성원도 있었다. 박재찬(신방1) 군은 "신문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용현(경영1) 군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동대신문은 대학언론으로서의 위상(位相)을 인정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몇몇 아쉬운 점들을 지적받고 있었다. 이에 김관규(신방) 교수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은 비판"이라며 "학교산하기관인 신문사가 학내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판해야 할 때에는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대신문은 60년 동안 1500편 신문을 발행하며 학내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런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한다는 것은 큰 책임감을 수반(隨伴)한다. 우리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로서,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사물을 판단하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 ▶ 4면에서 계속

최부식(10만원), 김희순(10만원), 정경화(10만원), 이강우(10만원), 방준국(10만원), 김경연(10만원), 김귀우(10만원), 정광교(10만원), 서정원(10만원), 문성천(10만원), 이상하(10만원), 최상은(10만원), 김영자(10만원), 김동우(10만원), 권오자(10만원), 박정선(10만원), 이동숙(10만원), 조덕형(7만원), 배명렬(7만원), 홍광표(5만원), 강태호(5만원), 정필원(5만원), 김영훈(5만원), 이영경(5만원), 김영기(5만원), 허상현(5만원), 김상겸(5만원), 이윤호(5만원), 김경호(5만원), 강시금(5만원), 이상철(5만원), 한관우(5만원), 김덕희(5만원), 이귀현(5만원), 금금숙(5만원), 최준식(5만원), 김대호(5만원), 박종환(5만원), 김중해(5만원), 김진호(5만원), 양애자(5만원), 권오은(5만원), 배성원(5만원), 최보미(5만원), 이규준(5만원), 이병욱(5만원), 손동학(5만원), 김형금(5만원), 백승우(5만원), 이진락(5만원), 손말란(5만원), 최희규(5만원), 주영우(5만원), 손미영(5만원), 안석용(5만원), 박종진(5만원), 이유기(5만원), 최재용(5만원), 이상욱(5만원), 김병철(5만원), 강경희(5만원), 윤광대(3만원), 엄규환(3만원), 최환호(3만원), 장현수(3만원), 정동원(3만원), 진병길(2만원), 박임관(2만원), 김성장(2만원), 홍창은(2만원), 장성준(2만원), 조정호(2만원), 조우형(2만원), 최

희규(2만원), 김정현(2만원), 김병욱(2만원), 윤희수(2만원), 김연경(2만원), 신윤섭(2만원), 차병희(2만원), 김용기(2만원), 조미숙(2만원), 변기수(2만원), 하동엽(1만원), 김문영(1만원), 이종임(1만원), 이경희(1만원), 정호근(1만원), 김학수(1만원), 김순(1만원), 권달영(1만원), 이동욱(1만원), 한창용(1만원), 신혜경(1만원), 이관(1만원), 이영실(1만원), 이종현(1만원), 박승운(1만원), 이락우(1만원), 박병국(1만원), 오세찬(1만원), 최진용(1만원), 박은주(1만원), 박정배(1만원), 신광택(1만원), 노혜식(1만원), 도영현(1만원), 윤광수(1만원), 김용배(1만원), 이효철(1만원), 김영석(1만원), 최광일(1만원), 김용태(1만원), 우정열(1만원), 김재훈(1만원), 박병찬(1만원), 류기형(1만원), 정휘수(1만원), 김영성(1만원), 김수진(1만원), 김보성(1만원), 김기호(1만원), 최진수(1만원), 황지영(1만원), 김오창(1만원), 김재훈(1만원), 임도균(1만원), 김순준(1만원), 신기하(1만원), 박기정(1만원), 김상일(1만원), 설윤희(5천원)

### 특정목적기금

장각원(438만8천원), 위계순(400만원), 이명기(100만원), 이민주(100만원), 임태야(40만원), 박종윤(30만원), 영남지역문화회(30만원), 김동협(20만원), 신상국(15만원), 진필수(15만원), 김문식(20만원), 이진호(20만원), 이권학(17만원), 김재문(16만원), 신홍록(15만원), 김상철(15만원), 채중구(15만원), 김복순(15만원), 구교찬(15만원), 이상록(15만원), 이태선(15만원), 전경환(15만원), 권혁대(15만원), 김상도(15만원), 김승용(15만원), 남기석(15만원), 박성진(15만원), 손창수(15만원), 양재

인(15만원), 이병국(15만원), 이용범(15만원), 임창수(15만원), 정관교(15만원), 조형돈(15만원), 박경문(15만원), 전무준(15만원), 이종윤(15만원), 정광훈(15만원), 박진호(15만원), 강민구(15만원), 송부용(15만원), 이윤호(15만원), 이홍수(15만원), 이동철(15만원), 강재용(15만원), 배상수(15만원), 이주환(15만원), 김병률(15만원), 김창희(15만원), 김동철(15만원), 한광태(15만원), 김희복(15만원), 정진화(15만원), 박재수(15만원), 최귀주(15만원), 윤진호(15만원), 김영옥(15만원), 김일영(15만원), 이재환(15만원), 이상진(15만원), 이종규(15만원), 최병욱(15만원), 강병중(15만원), 이상하(15만원), 김희수(15만원), 채경석(15만원), 진재선(15만원), 김민숙(15만원), 손규척(15만원), 하형성(15만원), 김중수(15만원), 김철수(15만원), 김택용(15만원), 양창용(15만원), 이정민(15만원), 최중수(15만원), 손승열(15만원), 김기영(15만원), 김기연(15만원), 이국일(15만원), 정대길(15만원), 강진수(15만원), 강상춘(15만원), 김문식(15만원), 김승옥(15만원), 김승연(15만원), 김용현(15만원), 김정순(15만원), 김중성(15만원), 김중원(15만원), 김현수(15만원), 김홍국(15만원), 박민식(15만원), 박종희(15만원), 양석민(15만원), 우병용(15만원), 우종진(15만원), 우희필(15만원), 윤상열(15만원), 윤재수(15만원), 이상철(15만원), 이상태(15만원), 이경민(15만원), 이진규(15만원), 이항훈(15만원), 장재수(15만원), 정혜정(15만원), 조준열(15만원), 최병천(15만원), 최영진(15만원), 홍순태(15만원), 권태일(15만원), 김시영(15만원), 김점수(15만원), 박주복(15만원), 손정호(15만

원), 신성일(15만원), 오중철(15만원), 차진철(15만원), 천진우(15만원), 황대인(15만원), 박신통(10만원), 한정수(10만원), 배충남(10만원), 이선인(10만원), 손동진(10만원), 김영민(10만원), (주)로즈버드(10만원), 홍보각(10만원), 현도님(10만원), 원영주(10만원), 송명희(10만원), 전승희(10만원), 탁상원(9만원), 변민우(8만원), 신하균(8만원), 조원택(6만원), 송익근(5만원), 김근목(5만원), 이원재(5만원), 최현익(5만원), 박지만(5만원), 오강희(5만원), 박순홍(5만원), 백용운(5만원), 김상유(5만원), 김경민(5만원), 장익원(5만원), 최경원(5만원), 김도윤(5만원), 최진석(5만원), (주)양카코리아(5만원), 티벳장경연구소(5만원), 김덕자(4만원), 김형배(4만원), 허부강(4만원), 이시영(3만원), 김성규(3만원), 성재용(3만원), 임병수(3만원), 박상범(3만원), 위희경(3만원), 김진철(3만원), 변승재(3만원), 공제학(3만원), 조동기(3만원), 김지우(3만원), 정은미(3만원), 김승욱(3만원), 이진욱(3만원), 배왕정사(3만원), 이은주(2만원), 조희영(2만원), 김성진(2만원), 권영배(2만원), 권영섭(2만원), 이현정(2만원), 전하철(2만원), 조성용(2만원), 최문규(2만원), 정안스님(2만원), 이계우(2만원), 박상익(2만원), 조용신(2만원), 박현민(2만원), 김기준(2만원), 김희수(2만원), 이상조(2만원), 최혜수(2만원), 최덕수(2만원), 이경자(2만원), 이리라(2원), 고백선(2만원), 김형남(2만원), 박경원(1만4천원), 김미운(1만원), 박권호(1만원), 조창욱(1만원), 권오윤(1만원), 박문수(1만원), 이철현(1만원), 박갑식(1만원), 이종우(1만원), 양형진(1만원), 나외영(1만

### 비지정발전기금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19,150만원), 김영환(100만원), 정재형(100만원), 백경임(100만원), 남경우(100만원), 강춘애(100만원), 이수경(50만원), 황순일(50만원), 전구진(50만원), 이원정(50만원), 진성기(50만원), 박도준(1만원), 김지연(1만원), 성호스님(1만원), 이종희(1만원), 노지혜(1만원), 신재수(1만원), 지명스님(1만원), 박연희(1만원), 김병철(1만원), 박갑동(1만원), 임순이(1만원), 윤병환(5천원), 권유미(5천원), 차미영(5천원), 이선혜(5천원), 서혜준(5천원), 지진스님(5천원), 김소현(5천원), 오은녀(5천원), 박순희(5천원), 이영숙(3천원), 김영미(3천원), 임순이(3천원), 김귀연(3천원), 이승진(3천원), 성은하(3천원), 박인옥(3천원), 동운스님(3천원), 윤영애(3천원), 이수선(3천원), 황혜정(3천원), 신현봉(3천원), 이주희(3천원), 이근호(3천원), 최옥희(3천원), 전수진(3천원), 전수경(3천원), 이효동(3천원), 김연주(3천원)

### 병원발전기금

유광욱(20만원), 일현스님(10만원), 박광호(5만원), 윤영해(5만원), 김도균(5만원), 계수호(5만원), 이규욱(3만원), 윤용태(3만원), 이만(2만5천원), 이명규(2만원), 노미숙(1만원)

# 기부금 납부안내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동국대학교가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화 : 02-2260-3300, 3794-5, 8992-3
- 팩스 : 02-2260-3796
- 홈페이지 : http://ilove.dongguk.edu

동대신문 지령 1500호 기념 좌담회 - 동대신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소통의 중심에 서서 대학신문의 위기 타파해야

## 기자의 현장 비판의식 필요... 신문 통해 동국 정신 고취시키는 역할도

### 좌담자

- 일시 :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 장소 : 동국미디어센터
- 참석자
  - 윤청광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영문59 · 62년도 편집장
  - 윤범모 : 경원대 미술학과 교수  
미술72 · 74년도 문화부장
  - 한만수 :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문77 · 79년도 편집장
  - 남철우 : KBS 정책기획본부  
농경89 · 91년도 편집장
  - 김미경 : 디자인 여백  
국문97 · 99년도 편집장
- 사회 : 최진아 (본사 편집장)



▲윤청광 동문



▲윤범모 동문



▲한만수 동문



▲남철우 동문



▲김미경 동문

“교수, 학생, 동문의 살아있는 스토리를 담은 신문 되길”

사회 = 동대신문이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오는 11월 29일 자로 지령 15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대신문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에 50년대부터 90년대 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동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동대신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신문사 기자로 재직할 당시를 회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청광(영문59, 1962년 편집장)** = 제가 학생기자로 재직했을 때는 동대신문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신문이 발행되는 날이면 학생들이 신문을 받기 위해 신문사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학내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당시 휴강이 잦은 대학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교무과의 서류를 훑어 한 학기 휴강통계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한 학기에 강의한 한 번도 하지 않던 H모 교수가 사표를 내고 대학을 떠났습니다.

또 '깨져가는 운동장의 꿈'이라는 대학신문 사상 최초의 호위를 발행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장충단 공원 자리에 운동장이 생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착공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기자들은 호위를 제작해 아침 일찍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를 본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데모를 벌였고 결국 학교는 그 건물을 인수(引受)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범모(미술72, 1974년 문화부장)** = 제가 동대신문에 입사했을 때는 군사독재 시절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휴교령이 자주 내려지고 학생들의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대학 총장과 당시 대통령이 같이 나온 사

“기자 스스로가 전문성을 키워 활자신문 한계 타파해 나가야”

진을 신문에 실었는데 대통령이 측근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신문이 배포 금지를 당하는 등 신문제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사적인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대학신문이 유일(唯一)했기 때문에 동대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만수(국문77, 1979년 편집장)** = 제가 학생기자로 활동하던 때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곳곳에서 독재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 때에는 신문 한 면이 시국선언문으로 채워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휴교기간에도 계속해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시를 회상하자면 검열에 대한 추억이 가장 많습니다. 신문제작 후 전두환 군부 시절에 서울시청 2층에 있는 검열실에 가서 검열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검열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열을 하던 군인들을 속이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철우(농경89, 1991년 편집장)** = 80년대는 한국사회의 격동만큼이나 대학사회도 시대의 도전과 변화를 온몸으로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동대신문 기자들 역시 사회민주화와 학원자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필화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학생기자들이 중부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를 회상하자면 취재를 많이 다녀 학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에 취재를 하러갔다가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할머니를 인터뷰 한 일이 아

“학내 구성원이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 형성 중요”

지도 생생합니다.  
**김미경(국문97, 1999년 편집장)** = 선배님들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기자로 있을 때는 기술적인 변화를 많이 겪은 시기였습니다. 수습기자 일 때는 200자 원고지에 기사를 작성했지만 3학년 퇴임을 앞두고는 맥 컴퓨터로 조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8면으로 발행되던 체제를 8면과 12면 교차 발행하게 됐고 신문에 칼라 지면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또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 기사 이메일실명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기사를 올렸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동대신문의 제호를 한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회 = 선배님들 말씀대로 동대신문은 각 시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신문제작에 대한 어려움, 기자들의 고민과 걱정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신문 기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동대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윤청광** = 지면 구성이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 언론다운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대신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 언론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회, 정치적 문제를 바라보는 학생기자들의 비판의식이나 고발의식, 현장의식 등이 많이 사라진 점이 안타깝습니다.

**윤범모** = 현재는 멀티미디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기로 활자매체의 영향력이 20~30년 전에 비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신문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만들 때는 매체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대학신문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해야 할 역할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매체의 변화를 모색해 봐야할 때”

하지만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신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청광 선배의 말씀대로 현장의식, 비판의식이 발휘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기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의식을 길러 활자신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타파해야 합니다.

**한만수** = 문자매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언론매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학생들의 신문인지, 대학당국의 홍보지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기자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구성원이 반응할 수 있는 기사를 쓴다면 문자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노릇이라는 것이 매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기자들은 성과가 힘에 비례해서 충분히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남철우** = 요즘 동대신문을 보면 인쇄매체로서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 맞는 매체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용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해 봐야 합니다. 또한 대학사회의 변화에 맞춘 눈높이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과거와 달리 대학언론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대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청광** =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동대신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 학생, 동문들의 살아있는 스토리가 신문에 자

“학내 언론으로서 구성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주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만수** = 선배 말씀에 덧붙이자면,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애교심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우리대학의 전통, 역사 등에 관한 기획 기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국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사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과거에는 신문을 제작하면서 시대적 상황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만들던 때에는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자들이 사회적 의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의제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철우** = 우리대학의 중흥을 위한 방법을 동대신문이 앞서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서 동대신문이 구성원들의 단결과 중지를 모으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담담히 동대신문 1501호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김미경** = 과거에 비해 학생기자들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배들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의 아이টে임을 결정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셜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는 시대인 만큼 동대신문이 소통의 창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대신문 애독자 인터뷰 - 조창원 동문 · 장시기 교수

# 학창시절부터 이어 온 동대신문과의 인연(因緣)

## 조창원 동문(경제57卒)



### “창간호부터 동대신문은 나의 오랜 벗”

다. 이렇듯 동대신문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조창원 동문 이기에 동대신문의 일부를 읽어버린 것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그는 “1965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할 때 께쪽에 넣어 놓은 신문들을 누군가가 전부 가져가 버렸다”며 아쉬워했다. 그 이후로 그는 동대신문을 읽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관에 신경을 기했다고 한다.

한편 조창원 동문은 요즘 신문을 보며 “과거에 비해 학생회, 본부에 대한 평가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외받고 있는 기초학문에 대한 기사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심도(深度)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사, 학교와 학생의 유대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사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 조창원 동문은 우리 신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동대신문이 구성원들을 이룰 수 있는 ‘소통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을 숙지하여 건설적인 소통의 신문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자 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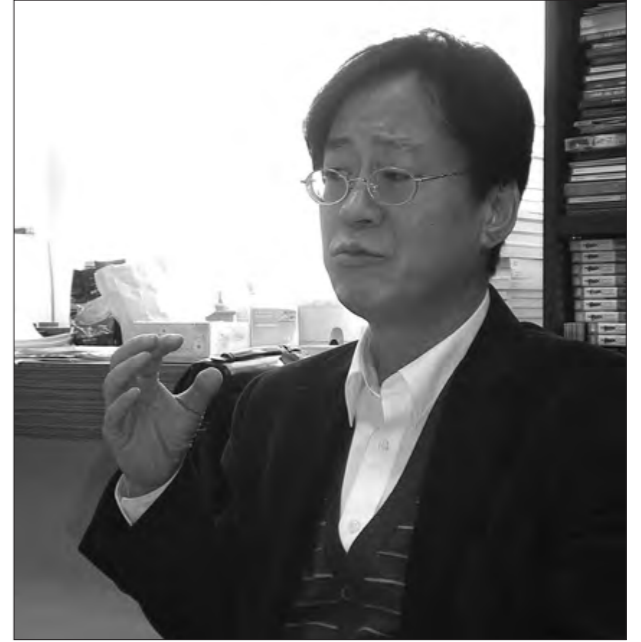
이지수 수습기자 jis@dongguk.edu

“우리대학의 역사를 대변해온 유일무이한 매체” 동대신문이 창간호 이래로 지령 1500호를 맞이했다. 이는 중간지로 발행되는 대학언론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동대신문의 수많은 독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많은 독자 가운데 창간호(1950년 4월 15일자)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된 1499호(2010년 11월 15일자)까지 모두 수집해 온 애독자가 있다. 바로 조창원 동문(경제57졸)이다. 조창원 동문은 “동대신문을 안보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조 동문과 동대신문의 긴 인연은 그가 우리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가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대신문이 창간됐다. 조창원 동문은 동대신문을 보며 우리대학의 ‘희비쌍곡(喜悲雙曲)’을 느끼게 됐다. 그는 “동대신문을 통해 우리대학의 영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을 접할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재학시절부터 동대신문에 애착을 느낀 그는 우리대학의 역사, 발전 기록이 담긴 동대신문을 수집(蒐集)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그의 동대신문에 대한 애정은 졸업 후에도 계속됐다. 암울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학생 기자 특유의 비판의식으로 기사에 녹여냈기 때문이었다. 조 동문은 4.19혁명 당시 동대신문의 보도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해 부패된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이 실렸던 기사를 읽을 수가 없다”며 “4.19혁명 당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노회두 동문의 사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7년 당시 로스쿨 인가 투쟁을 다뤘던 기사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대학이 일산 약대유치에 성공해 의생명과학캠퍼스가 신설된다는 보도를 통해서 대학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

동대신문이 지령 1500호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60년 동안 신문 제작에 힘쓰던 학생기자들의 역할도 컸지만, 수많은 독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기록일 것이다. 이에 동대신문을 꾸준히 읽어 온 애독자를 직접 만나 동대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동대신문은 과거이며 현재, 또한 미래”



## 장시기 영문학과 교수

흔히 ‘30년이면 강산(江山)이 변한다’고 한다. 1981년 우리대학에 입학해 현재 교수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동대신문과 인연(因緣)을 이어온 사람이 있다. 바로 영문학과 장시기 교수다. 학생으로, 교수로 동대신문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체감(體感)할 수 있었다는 장시기 교수. 동대신문 역사의 반을 함께 한 그를 만나 동대신문과의 인연을 들어봤다.

동대신문과 장시기 교수의 인연은 장 교수가 1981년 동국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장시기 교수는 “당시 대학생이 사회문제를 주도하던 시기”라며 “기성언론이 다루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동대신문은 대학 내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동대신문에 대한 얘기는 항상 빠지지 않았다”고 동대신문이 80년대 대화의 매개였음을 말했다. 장시기 교수는 당시 기자와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공개(公開)했다. 그는 “학부생 시절 동대신문을 깔고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기자 친구에게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렇듯 장시기 교수는 대학시절은 동대신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학부생 시절 동대신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대학원생 시절에는 동대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고, 좌담회에 참석해 열린 토론(討論)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 그를 대학원신문 기자로, 동국포스트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게 했다고 한다.

이렇게 동대신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장교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80년대 후반에 실렸던 문예운동 논쟁(論爭)에 대한 특집기사라고 한다. 이 기사는 그 당시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없었던 사회 현실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기사였다. 때문에 학생들을 이 기사를 통해 학업과는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동대신문의 그 기사를 통해 사회와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시기 교수는 30년간 동대신문을 읽어온 애독자로 최근 동대신문에 대해서도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장 교수는 “동대신문 문화면을 통해 사회와 학생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대학신문은 학생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화에 발맞춰 동대신문이 지구촌 시대의 문화, 학술의 다양한 흐름과 세계의 목소리를 전해 주길 희망(希望)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심어린 충고로 그는 1500호를 축하해 주었다.

장시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대신문이 학내 신문으로서 서야할 위치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은 동대신문이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안신정 수습기자 jekyl@dongguk.edu



▲ 1950년 ~ 1952년 ▲ 1953년 ▲ 1954년 ~ 1955년 6월 18일 ▲ 1955년 9월 5일 ~ 1962년 7월 5일 ▲ 1962년 7월 12일 ~ 1962년 12월 13일 ▲ 1963년 1월 3일 ~ 1989년 2월 22일

# 東大新聞 동대신문

▲ 1989년 3월 1일 ~ 1998년 2월 22일 제호 ▲ 1999년 3월 1일 ~ 현재 제호

## 동국대학교 주요 신축사업 진행사항 안내

- 일산 산학협력관 및 강의동은 2010년 09월 공사를 완료하고,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일산 산학협력관 및 강의동 준공



일산 종합강의동 및 약학관 현장 전경

- 일산 종합강의동 및 약학관 신축사업은 현재 종합강의동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약학관은 골조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강의동은 2011년 2월, 약학관 2011년 8월 각각 순차적으로 완공예정입니다.

- 서울 산학협력관(기숙사) 및 지하주차장 신축사업은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서울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현장 전경



화계사 백상원 현장 전경

- 화계사 백상원 신축공사는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2월 완공예정입니다.

## 사업개발본부

동국대학교

### 제 4 회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2011.01.12 ~ 2011.01.14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신청자격 :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 신청단위 : 개인

신청 및 접수기간 : 2011.01.12(수) ~ 2011.01.14(금)

공모부문  
- 공연예술 : 희곡 / 뮤지컬 대본  
- 영상시나리오 : TV 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제출기준 및 형태 :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11point 글자)

수상작 발표 : 2011.02.01 (화) (본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내용  
- 대상 :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100만원 (본 대학원 입학사정 장학 특전)  
- 최우수 :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50만원  
- 우수 : 각 부문별 2명(총 4명) 각 30만원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연에 소정의 기념품 제공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공모신청서 및 시놉(A4 3매 이내) 1부  
- 시나리오 1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학빌딩 1층)  
- 연락처 : 02-2260-3768, 3764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장



위클리 동악문화

동악에서 펼쳐지는 열정의 릴레이 공연

연극학부, 2학기 정기공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폐임까지

우리대학 연극학부 학생들의 탐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2010 연극학부 2학기 정기공연에서 우리대학 연극학부 학생들은 미국, 영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뮤지컬을 우리 앞에 선보인다. 지난 25일부터 우리대학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연극학부 학생들의 정기공연이 다음달 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막심 고리키 작가의 '밀바다에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폐임', 프랑스 3대 뮤지컬 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 마지막으로 안톤 체홉의 '갈매기'에 이르기까지,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선보인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공연된 첫 번째 연극 '밀바다에서'에서 연극학과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연기력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 연극은 좁은 여인숙에서 펼쳐지는 '밀바다' 인생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선보일 '폐임'은, 개성과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뮤지컬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공연된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고 직접 춤을 추는 등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적대적소에 인물들의 대사를 배치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점이 극의 흥미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선보일 '갈매기'는 체홉의 극단적 현실주의를 희극적으로 풀어낸 연극으로, 평화로운 유럽풍의 분위기가 우리를 단번에 극 속으로 빠뜨릴 것이다.

한편 이번 연극학부의 2학기 정기공연은 우리대학의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진행되고, 입장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교직원부터 학생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동악에서 펼쳐지는 연극학부 학생들의 탐과 열정의 무대를 통해, 그동안 대하기 어려웠던 뮤지컬과 연극을 접하는 기회와 함께 추운 겨울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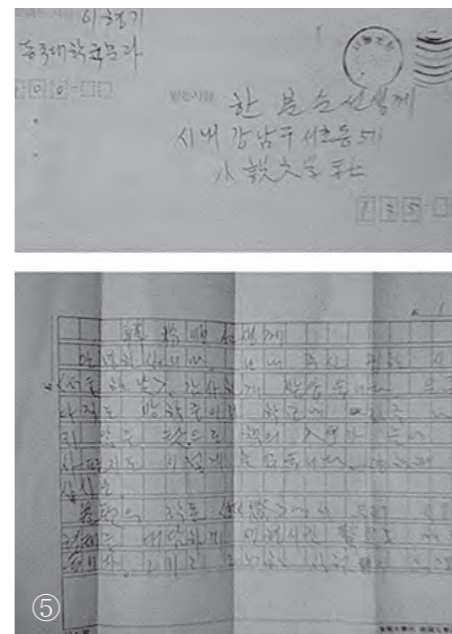
▲'밀바다에서' 11월 25일 ~ 27일 평일 (목), (금) 늦은 4시, 8시 주말 (토) 늦은 3시, 7시  
▲'폐임' 12월 2일 ~ 4일 평일 (목), (금) 늦은 4시, 8시 주말 (토) 늦은 3시, 7시  
▲'로미오와 줄리엣' 12월 9일 ~ 11일 평일 (목), (금) 늦은 4시, 8시 주말 (토) 늦은 3시, 7시  
▲'갈매기' 12월 16일 ~ 18일 평일 (목), (금) 늦은 4시, 8시 주말 (토) 늦은 3시, 7시

동국 문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⑤ '낙화'의 신화 이형기

# 삶 자체를 시로 살아가신 이 시대의 진정한 시인

## 문학의 외길만을 고집해온 치열한 시(詩) 정신

순수문학의 치열한 시 정신을 통해 한국 현대시단의 독보적 영역을 구축한 시인 이형기. 긍정과 순응을 지향한 초기의 서정시에서부터 허무적 관념을 중심으로 쓰여진 격정적인 후기 시까지, 그에게 있어 시는 세상의 어떠한 욕망도 넘어서는 인생 그 자체였다.



① 정든 교정에서 이형기 시인. ② 투병중인 이형기 시인. ③ 진주에 있는 '낙화' 시비 ④ 우리대학 국문과 교수시절, 시인 좌우로 허혜정 교수와 김초혜 시인도 보인다 ⑤ 시인의 친필 편지.

이형기 (李炯基) 연표 (1933 ~ 2005)  
▲ 1933년 1월 6일 :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 ▲ 1949년 : '문예'에 시 '비오는 날' 등이 추천돼 최연소 등단 기록 ▲ 1956년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1959년 : 한국문학가협회상 수상 ▲ 1962년 : '현대문학'에 평론 '상식적 문학론' 연재 ▲ 1963년 : 시집 '적막강산' 발표 ▲ 1978년 :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 1980년 : 평론집 '한국 문학의 반상' 발간 ▲ 1990년 : 대한민국문학상 수상 ▲ 2005년 2월 2일 영면

### 이형기 시인과 108호 강의실의 추억

기억은 1986년 봄으로 거슬러간다. 내게 그 봄이 특별했던 것은 동국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으로 새로이 초빙되어 오신 이형기 선생님 때문이었다. 해례문이 이 땅에 흘러 다니기도 전에, '시는 전복이다' 외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한다. 그는 수업 중에 단 한 번도 출석을 부른 적이 없었고, 학생이 떠들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독특한 경상도식 악센트로 시 창작론을 강의하던 그는 늘 단단하고 직박한 표현을 사랑했다. 선생님의 옆 좌석에 앉아 동해안의 국도를 달리던 수학여행길. 멋진 베레모를 쓰시고 학생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출정하시던 모습, 칠판에 낯선 아방가르드풍의 시를 써내려가시던 모습, 어린 학생들의 사화(詞話)집을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 수정해 읽어주시던 모습이 지금껏 생생하다. 문득 그의 회갑기념식이 열린 다항관에서 선생님께서 부르시던 노래가 귓전에 살아온다. "가로등도 즐기고 있는....." 그의 기억은 나의 삶 속에 넓게 퍼져 있다. 이형기 시인은 당신의 삶 자체를 시로 사신 분이다. 약관 17세에 등단하시어, 평생토록 문학의 외길을 걸어오시며 세상의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는 동국문학의 자부심이자 한국현대시사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무수한 어제"로 남아있는 그의 빈자리를 시를 통해 되돌아본다.

### 한국 현대시사의 천재 소년 문사

이형기는 1950년 '문예'지에 최연소 등단 기록을 세우며 시 뿐 아니라 비평과 소설, 수필 등 전 방위의 활동을 펼쳐왔다. 1960년대 '현대문학'에 '상식적 문학론'을 연재한 데 이어 1963년에는 이어령과의 문학논쟁에서 평론표절과 모방문학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순수·참여논쟁에서는 예술가의 개성적 자유를 옹호, 순수문학의 치

열한 시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문학세계는 이후 줄곧 견지했다. 그가 우리에게 독보적으로 보여준 것은, 가장 첨예하게 세계와 대결하면서도 언어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상력의 영구혁명'이다. 전체주의에 반역하는 단독자로서, 자유로운 인식의 모험을 치열하게 감행해온 그의 전복(顛覆)적인 언어실험은, 불온한 자유주의자이자 전위적 모더니스트로서의 초상을 독자에게 깊이 각인시켰다.

### 시대와 순수, 반항과 파괴의 시 정신

"시란 본질적으로 구축해놓은 가치를 허무화시키는 작업이며 시에 절대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와의 화해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절망을 확인할 때만이 꿈은 꿈으로써 참답게 존재한다." "허무의 세계에서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란 절망을 확인하는 일 뿐이다"라는 시인의 아포리즘처럼, 불교와 모더니즘 정신을 통해 끝없는 미적 혁신을 감행해온 그의 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기 시는 내밀한 서정성을 주조로 한 시들로, '적막강산'과 '돌베개의 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시들은 자연에 개인의 감상을 투영하는 서정적 요소를 짙게 가지고 있지만, 서정적 자아와 자연과의 일치를 지향했던 기존의 청록파 류의 시와는 다른, 지적이고 날카롭고 정제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후 이형기는 모더니스트로서 자의식과 시적 방법론적 필요를 자각하면서, '꿈꾸는 한발'에서부터 약파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상상력과 일상적 인식을 전복하는 파괴와 부정의 언어를 실험하였다. 부조리한 현대적 삶에 대한 치열한 인식하에 상상력의 영구혁명이란 명제를 마련한 것도 이 시기에 해당된다. 파괴와 부정의 미학이 두드러진 중기 시 '꿈꾸는 부활', '풍선심장', '보물섬의 지도'와 같은 시집은, 세기말적 파멸

의식, 문명비판과 생태의식이 엮여있는 '심야의 일기예보', '죽지 않는 도시' 등의 시세계의 기반이 된다. 그의 시는 전통 서정시의 유약한 화법을 극복하는 강인한 남성적 화법을 구사하면서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문명적 현상에 대항하는 단독자로서의 자유의식을 울리게 지향한다. 특히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군사독재 시대의 암울한 정황을, 선전적 참여시의 어법이 아니라 파괴적 이미지 속에 용해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순수·참여" 논쟁에서 이미 표면화된 그의 예술지상주의적 자유의식의 자연스런 발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부조리한 사회와 문명적 폭력과 폐해에 대한 자각이 심화되면서 그로테스크한 언어실험은 문명 비판적 시각과 결합되어 그 강도와 깊이를 심화시킨다. 특히 90년대에 발표된 '심야의 일기예보'와 '죽지 않는 도시'에는 현대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비극적 인식이 포스트모던한 수사로 형상화되어 있다.

### 연기(緣起)와 공(空)의 세계

파괴와 위약으로 대표되는 중기의 시세계는 1998년에 발간된 '절벽'에서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보여준다. 오랜 투병기간 중에 쓰여진 이 후기 시편들은 허위의 현대성에 대한 회의와 부정, 실존의 상처를 힘겹게 뚫고 나온 말들이 깊이 있는 존재론적 탐구와 허무의식으로 심화되고 있다. 불꽃같은 시혼을 불사르듯 시인이 병상에서 토해놓은 시편들은, 불교의 공의 정신과 소멸이라는 존재의 궁극성에 대한 심문을 강렬하게 던져준다.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생의 막다른 경계를 표지하는 것이지만, 우주적 흐름 속에 자아를 던져 놓는, 새로운 삶으로의 제의적 관문의 의미를 가진다.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바다'의 이미

지는, 생명의 가장 기원적인 이미지이면서, 존재의 밀폐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우주적 전망을 내포한다. 소멸이 아름다운 이유는, 인간의 궁극성에 대한 인식의 용기와 절박한 창조적 기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 소멸의 운명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대적 의식의 기본적인 생리일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원원불사(源源不絕)의 욕망 때문에 현대문명은 필연적으로 실존적 부정적(否定)적 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강렬한 탄핵은 일찍이 그의 시를 관통해온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이 시집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이전 시들을 종합하는 완성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시집 속에 수록된 아포리즘 '불꽃 속의 싸락눈'은 시력 50년간 갈무리해온 그의 시적 입장의 총결산이다. 그의 시론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는 핵심은 '우로보로스의 미학'과 '묵시록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는데, 묵시록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억압적인 의미질서의 해체라면, 우로보로스의 미학이 추구해가는 것은, 소멸과 생성이 상호 전화(轉化)하는 창조(創造)의 사이클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은 끊임없는 소멸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에 의해 나타나고 촉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집 밀바탕에 깔려있는 연기(緣起)와 공(空)의 세계는, 끝없는 변형이요 절대(絕對)의 부정(否定)이요 우주질서의 궁극의 표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절벽'은 삶과 죽음의 격렬이 아니라, 시간의 언저리로서의 경계일 뿐이다.

그 생의 절정에도 같은 절벽에 우뚝 서서, 가장 깊은 심연의 노래를 부르는 오연한 완성자의 초상은, 이형기의 시가 도달한 존재론적 미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허혜정  
한국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찾아 < 12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정현 동문

# “대공심(大空心) 대공심(大公心)이 좌우명”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 따위의 역할을 이르는 말. 사전에서 정치를 찾아보면 나오는 결과다. 이렇듯 정치의 올바른 정의는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있다.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이정현(정치외교85졸) 동문을 찾아 그의 삶과 동약에 얽힌 추억에 대해 들어봤다.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낸 이준경은 저서 동고집에서 바른 정치에 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많지만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우수한 통치형태다. 그것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존경하는데 기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듣고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최우선과제다.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자 불철주야(不徹晝夜) 밤 흘리는 제18대 국회의원 이정현(정치외교85졸) 동문. 그를 만나 그의 인생에 담긴 노력과 철학, 그리고 우리대학과의 인연에 대해 들어봤다.

### 약자를 돕고 싶은 국회의원

전라남도 곡성의 산골 소년 이정현 동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합동유세를 보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게 됐다.

이 동문은 “유세 당시 후보들이 전기의 미(未)공급이나 도로의 비포장 등 두메산골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연설을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문에게 있어 정치는 약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돕는 활동이다.

그는 “사람들의 어두운 표정이 내 도움으로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볼 때의 뿌듯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自負心)을 드러냈다.

그런 그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관련 복지. 그 중에서도 소록도의 한센인 병원을 리모델링한 것은 최고로 꼽힌다.

이 동문은 “내 신념, 의지에 따라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동국에서 배운 호연지기

“모름지기 정치가라면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자세를 품어야 한다. 통이 커야만 정치가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대학의故 이종린 교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의 이정현 동문이 있기까지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이 동문은 “당시 이종린 교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양 있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난 늘 동국대를 졸업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렇듯 이정현 동문의 애교심은 남다르다. 이에 대해 이 동문은 “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많은 에피소드들 때문에 유독 애교심이 강한 것 같다”며 “특히 야구를 보러 다닌 것은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대학 야구부는 김인식 전(前) 국가대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한대화 현(現) 한화 감독과 김성한 전(前) 기아 감독을 주축으로 한창 명성을 떨쳤다.

이런 재밌는 야구에 반해 이 동문은 매일 같이 야구장을 찾았다. 그는 “야구부의 경기가 있다면 수업을 빼치고서라도 경기장에 갔다”며 “야구광이 된 것이 애교심을 고취(高趣)시켜준 것 같다”고 추억에 잠겼다.

정치적 격동기에 대학생활을 한 이정현 동문은 당시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그러했듯 시국관련 데모에 많이 참여했다. 또 그는 학내 토론 회에도 단골 사회자였다.

이 동문은 “토론회가 끝나고 정무기관의 감시 요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과 도주로를 공

모(共謀)하곤 했다”며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는 정치외교학과와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보이고 있다. 재학 시절 이 동문은 상우회라는 과모임에서 선배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선배들에게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줘야 할 의무를 느껴 지금도 꾸준히 모임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그는 선배로서의 면모 또한 부족함이 없어보였다.

### 성공을 위해선 구체적 목표 필수

이정현 동문에게 있어 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 동문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장르의 책을 두루 읽었다”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 내용 중 한 문장이라도 내 것이 된다면 그 책은 내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후배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동문은 “책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힘이자 무기이며 그 자체로 자본이 된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力說)했다.

덧붙여 그는 “학업을 통해

얻는 지식보다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이 더 깊지게 쓰인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그는 후배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 동문은 “막연하게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과 추구, 노력만이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동문의 좌우명은 ‘대공심 대공심(大空心 大公心)’으로 ‘마음을 크게 비워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크게 봉사하라’는 뜻이다. 이런 좌우명을 내걸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동문은 인터뷰 내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동문은 “정치인이란 국민들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이것이 헌

법정신인데 요즘 정치인들은 그것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은 정치인생도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하는 이정현 동문.

그의 신념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슴에 품은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프로필

△ 1958년 9월 1일 전남 곡성 출생 △ 1985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 △ 2002년 한나라당 16대 대선 전략기획단장 △ 2004년 17대 총선 광주 서구 을 한나라당 후보 △ 2006~2007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변인 △ 2006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법제사법위원회위원 △ 2008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사)한중 문화협회 교문 △ 2008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 바다해의 원샷스키 타는 법 1단계 ]

## 일단, 아무데서나 전철을 타!

[ 바다해의 원샷스키 타는 법 3단계 ]

## 전철에서 슬로프로 원샷!

[ 바다해의 원샷스키 타는 법 2단계 ]

## 엘리시안까지 원샷으로 쏘는거야!

올겨울 스키는 엘리시안 강촌으로 원샷!

[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

서울에서 원샷! 전철로 원샷! 원샷 스키장! 엘리시안 강촌만의 대학생 특별할인  
 • 재학생 리프트 최대 50%~30%할인 (예표소에서 본인 학생증을 제시해주세요) • 전철 이용시, 부대시설 이용권(3,000원) 제공

www.elysian.co.kr TEL: 033-260-2000

대학 구성원이 말하는 차기 총장상

# ‘구성원 화합 능력 중요’ 한목소리 … 학교 발전방향은 ‘異見’

1. 일반 기업이나 행정조직의 리더와 비교했을 때 ‘대학 총장’이란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는가.
2. 대학 총장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품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가.
3. 총장이 대학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곳에 가장 주안점을 두길 바라는가.
4. 동국대 총장으로 필요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하겠는가.
5. 앞선 여러 총장들의 리더십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6. 총장이 될 사람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 25일 차기 총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되었다. 차기 총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학 구성원의 대표를 만나 대학 총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직원의 경우 직원노조 내부사정상 질문에 응할 수 없음을 표명하여 지면화하지 못하였다.

기획·정리 =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 교수 연구 부분에 자율성 부여 행정부분에 더욱 리더십 발휘를



박순성  
교수회장

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또한 현재 구성원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애교심이 떨어져있다. 이러한 애교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종단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4. 교수의 경우 큰 연구팀을 꾸려본 경험이나 학장을 지낸 것과 같은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외부인사라면 기업이나 관료의 경험을 했지만 성품이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그 조직을 잘 이끌었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또한 대학을 아시는 분,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을 가진 분이시길 바란다.

5. 대학 총장은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감이 필요하다. 없다는 것은 자율성을 많이 주면서 큰 비전을 만들어 끌고 나가야한다. 있어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대외적으로도 존경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교육 분야는 교수의 자율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반면 행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6. 교수사회를 존중함으로써 교수 스스로가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학교 발전에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교수사회를 경영이나 운영의 개체가 아닌 주체로서 받아들여 교수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

1. 기업과 관료 사회와 대학은 같은 측면도 있지만 운영원리에 있어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것이 ‘양적 경쟁’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깊이 고민하고 운영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 두 번째로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분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국인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특성분야를 육성시킬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

2.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3. 최근 들어 우리대학은 양적 성장을 위해 지하주차장, 산학협력관, 일산캠퍼스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로인해 예산의 제약과 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안

## 국내 대학 10위안으로 도약 학교위상 높이는 데 최선을



항영남  
총동맹회 부회장

전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즉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구성원들이 4년 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상을 확실히 가지고 학교를 경영해야 한다. 꼭 교수 출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교육을 모르는 외부 인사가 오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때문에 교수사회와 교육을 깊이 이해하는 분을 모셔와야지만 내부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5. 고등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들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그러므로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SKY대학만큼 우수 고등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등한시한 것 같다.

6. 동국대학교를 4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총장이면 환영한다.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 제자들을 사랑하는 분,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분, 동국대를 졸업하면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수를 위한 학교가 아닌, 수요자인 학생, 사회를 위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을 만들어야 한다.

1. 기업체의 리더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 행정 조직의 리더는 관리와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대학의 총장은 학문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대학의 수준을 세계 유수의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대학 총장은 상당히 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펀딩을 통해 사회적 자본도 끌어오고, 교수님을 도와 학문적 발전도 꾀해야 하며, 학생들을 경쟁력 있는 인재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2. 솔선수범해야하며 열정을 가지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교심으로 뜰 뜰 무장돼 학교 발전에 열정이 많은 분이셨으면 한다.

3. 동국대학교의 건학 정신에 기반하되, 동국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의 일환인 미래 비

## 대학은 사회 인재 양성기관이자 교육공동체라는 인식 필요



박인우  
총학생회장

시켜서 학교 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3. 학생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고객으로 전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가 필요하다. 즉,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후 처리 중심이 아닌 계획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고 등 진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강의, 강의평가 등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논의 체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4. 현재 총장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장후보자에 대한 불공평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5. 어떤 사업이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학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

6.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존중해줬으면 한다. 학생회를 존중해주고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교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있고, 학교 재정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한다.

1. 모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동국대에서 이상적인 총장은 지금 불거진 학내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총장이 돼야 한다.

2. 포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교수, 동문,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각기 입장이 다르다보니 구성원들 저마다 모두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의 의견을 포용하고 조화

### 동국대학교 104년 / 불교학과 104년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귀의삼보하옵고, 2010년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 제위께서는 무루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10년 12월 06일(월) 18시
2. 장 소 : 엠버서더호텔 오키드룸(19층)
3. 참가회비 : 5만원 (부부동반 환영)
4. 연락처 :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실)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공동회장 홍파 · 홍영춘 합장

### 동국대학교 백상응원단

### 2010년 2학기 신입단원 2차 모집!

- 모집 대상 : 10학번 누구나
- 모집 파트 : 액션, 밴드
- 모집 시기 : ~12월 10일(금)
- 지원 방법
  - 응원단장 : 010-8937-8995
  - 응원단실 : 02-2260-3683
  - 싸이클럽 : club.cyworld.com/bscheers
  - 홈페이지 : baeksang.x-y.net

※ 대학생회에서 잊지못할 추억을 함께 할 신입생들! 바로 연락주세요!

### [想象예찬] 2010년 2학기 동국 글쓰기 공모전

사고충전! “다 쓴 보고서 받습니다”

### <제7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공모대상 : 2010년 1학기 / 2학기 교양수업 보고서  
감상문(독서, 영화비평, 기행문) 등 자유 글쓰기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50만 원 / 우수상 3명 각 10만 원

- || 응모마감 || 11월 30일 (화)
- || 응모방법 ||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 결과발표 || 2010년 12월 10일(금)
- || 기 타 || 제출할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보고서 공모의 경우 강좌명, 담당 교수명 기입)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http://writing.dongguk.edu  
TEL. 02)2260-3380

### 『철학·사상·문화』 제11호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는 2011년 1월 31일 발간되는 『철학·사상·문화』 제11호에 수록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철학·사상·문화』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모집 대상 영역은 철학, 사상, 문화입니다.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제출 마감일 :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2. 원고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nsewtdgu@gmail.com)
3. 원고 명기사항 :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4. 원고 제출 관련사항 :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ins-ewt.dongguk.edu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1년 1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11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02-2260-8838) 또는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 디지털 불전과 국제협력세미나 성료(盛了)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과 교육연구원에서도 학술대회

지난주 학내 곳곳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화가 필요하다는 학문에서 우리대학이 중심에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높다. 먼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보광스님)가 ‘디지털 불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최규남 교수)은 ‘영상문화콘텐츠의 융 복합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계 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교육연구원(원장=한철호 교수)이 주관하고 교육학회가 주최한 ‘역사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Buddhicae)와 보살장경, 전자불교사전, 한글대장경 전산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3일에는 전자불전과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날은 업과 저작권, 분배 가능한 전자불교연구데이터의 형성 그리고 SAT 프로젝트와 웹 솔루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전자불전 누리꾼의 관리, 전자불전 검색시스템의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 영상문화콘텐츠의 융 복합 현황과 과제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의 추계 학술대회는 25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0여 년 전부터 영상문화콘텐츠에 대한 융 복합 흐름의 소개와 동시에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지원은 미흡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융 복합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열렸다. 최규남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활발한 융 복합 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의 침범으로 세계에 우뚝 서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영상문화콘텐츠의 산학협동 첫 번째 발표 주제로 삼으며 3D 입체영상 시장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의 융 복합 과제에 대해서는 TV광고의 서사구조 연구와 무대공연에서의 테크닉의 변천과 방향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어서 영상문화

콘텐츠의 융 복합 기획연구와 불교게임콘텐츠 기획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문화산업정책의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한 발표가 융 복합 시대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문화지수의 역할과 정책성과평가의 새로운 기준과 합의라는 주제로 나눠져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상섭 KBSN 기술감독, 정동환 박사, 나인하 경희대 교수, 고미라 박사, 이영숙 박사, 홍수현 동부산대 교수, 김한창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 역사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현황과 대책

사범대학 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역사와 교육학회가 주최한 ‘역사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학술대회는 27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황인규 역사교육과 교수는 “수능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만으로 평가되는 역사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가 제대로 나타나지는지에 대한 재논의”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대학 입학시험의 변천 과정과 특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다음으로 각각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사와 한국 근·현대의 출제 경향과 대책에 대해서와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날 발표자로는 오정현 이화여대 박사, 강승호 동국대 박사, 최태선 동국대 박사, 김정수 고려대 석사가 참석했으며 모두 역사교사로 재직 중이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 디지털 불전과 국제협력

‘디지털 불전과 국제협력’ 세미나는 22일부터 23일 까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불전 전산화와 불교학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보광스님은 “불전전산화를 통한 지식 정보화가 체계적으로 자리잡아야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불전 전산화의 미래와 국제적 협력에 대해 고민의 방향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전전산화의 미래 방향을 필두로 시작한 발표는 불교학의 미래와 국제협력을 통한 불교 연구 지식베이스 구축으로까지 이어졌다. 더불어 TLB(TheSaurus Literaturae

# ‘Non Fire Cooker’와 ‘땀 흡수 깔창’ 등 독특한 작품 선보여

## 공과대 작품 전시 지난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과대학 학과별 전시회가 지난 8일부터 학내외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작품전시회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은 공과대 학생들이 지난 1년간 학습내용을 토대로 직접 실습(實習)하고 作業해 만든 것들이다.

화학생명공학과는 지난 25일과 26일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제 19회 ‘화공 PROCESS 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 없이 음식을 가열할 수 있는 ‘Non Fire Cooker’와 고흡수성 수지를 이용해 개발한 ‘땀 흡수 깔창’ 등 9개 작품이 선보였다. ‘땀흡수 깔창’을 개발한 이지홍(화공4)군은 “우리가 개발한 땀 흡수 깔창은 자체 무게의 1천배에 달하는 물의 양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전기공학부의 작품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있었다.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또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원흥1관 1층 공작실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건축공학부의 작품전시회 ‘The 34th Dongguk Architecture Exhibition’은 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에서 17일부터 3일간 열렸다. 산업시스템공학과는 26일,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대회를, 원흥1관 4층 인간공학실에서는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전시회에는 ‘동국대 RFID 자산관리시스템 리더기 개선방안’ 외 총 10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한편,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원흥1관 6층 세미나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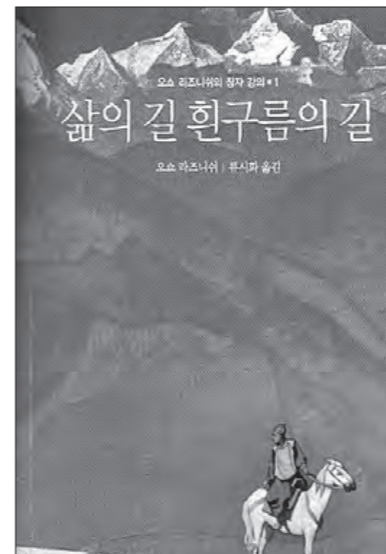


열린다. 또 컴퓨터공학전공의 캡스톤디자인 작품전시회는 다음달 15일, 엔터테인먼트 작품전시회는 22일 정보문화관 2층 알과실에서 개최된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 송민규 교수의 독서산책

### 새롭게 태어난 장자의 지혜



#### 삶의 길 莊子

지은이 오소 라즈니쉬  
옮긴이 류시화  
펴낸곳 청아출판사 2005년 2월

이 책은 오소 라즈니쉬 지은이 오소 라즈니쉬 옮긴이 류시화 펴낸곳 청아출판사 2005년 2월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잡스는 이공계 대학 출신이지만, 인문학에 바탕을 둔 공학(工學)이 더 가치 있다고 항상 주장한다. 특히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의 말은 당대 최고의 명언(名言)으로 꼽히고 있다.

나도 이공계 출신의 대학교수로서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인간의 근본마음과 휴머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올바른 공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명사(名士) 오소가 중국의 사상가인 장자에 대해 현대적 가치로 새롭게 강인한 ‘삶의 길 莊子’는 인간의 근본(根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명작이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장자는 그 내용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不)하고,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오소는 장자의 내용 중에서 총10개의 지문을 발췌

(拔萃)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각색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는 빈배에 대한 비유를 했다. 강에서 노 젓는 배를 타고 갈 때, 반대쪽에서 사람이 없는 빈 배가 오면, 내가 알아서 그 배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노를 젓고 있으면, 서로 비키라고 소리를 친다. 그리고 곧 싸움으로 이어진다.

나의 배를 비우면, 상대방이 알아서 비켜가고 자연히 싸움도 없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늘 서로 비키라고 싸움을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비우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불사조와 올빼미의 비유이다. 불사조는 함부로 내려앉거나 함부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올빼미는 반쯤 썩은 쥐를 뜯어먹고 있다가 불사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두렵고 당황하여 썩은 쥐를 더욱 더 옮겨준다. 또한, 올빼미는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것만 골라 상대를 심하게 공격한다.

아무도 이런 올빼미처럼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대부분 이런 올빼미처럼 살고 있다. 자아(自我)를 찾는 제 1걸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올빼미의 습성을 버리고, 불사조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셋째는, 대자유의 길이다. 활을 쏘는 궁수가 재미로 활을 쏠 때는 온갖 기술을 다 부린다. 그러나 상금을 받기 위해 활을 쏘면 궁수의 눈은 멀고, 과녁은 두 개로 보이게 된다. 궁수의 기술은 변함은 없지만, 상금이 그를 분열시키고, 근심하게 한다. 이기기 위해 활을 쏘면, 결국 궁수의 힘은 고갈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삶속에서 그저 남을 이기기 위해 힘을 다하면, 결국 에너지는 고갈(枯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화살을 쏘지 말고, 화살로 하여금 저절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신비이며 대자유의 길이다. 삶은 풀어야 할 수학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아름다운 신비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주옥(珠玉)같은 말이 많지만, 지면상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전에 인간본성에 대해 통찰을 하는 것이 성공으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소의 통렬한 비유와 언어는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도체학과 교수)

# 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의견제출기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30% 감축) 달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고, 할당 대상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도록 함.
  - 정부는 배출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에 관한 사항, 무역장벽도 및 탄소시장, 할당 대상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함.
  - 할당 대상업체,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할외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은 거래참여자라 할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소 등을 통해 인도 또는 영수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배출권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에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고,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말에 배출권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차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배출권 거래기간의 인정을 행성을 위하여 유상할당량의 조기 귀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 : <http://www.pmo.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 02-2100-2369, 전자우편 taof@pmo.go.kr)  
·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 02-735-2486)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7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지속유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
  -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지속유지에 지속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휴가에서 꺼내어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지속유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하기 위해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시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 자세한 내용 : <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노동노동부 근로기준과 (☎ 02-2110-7391, FAX 02-603-6932)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8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 등에 관한 업무의 전산처리 및 자료의 제공·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 기능이 산업단지 등에 집적되어 생산·연구개발·인력양성

이 융합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단지의 구조조도와 도시사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산업용지 등을 양도할 경우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구조조도와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함.

-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운영기간의 지정요청하여야 하고 승인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립과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함.
-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와 표준협약 체결 시 그 관리자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사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표준협약을 체결한 관리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지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키고 사후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 : <http://www.mke.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지식경제부 입법총괄과 (☎ 02-2110-5304, FAX 02-504-6402)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15일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안

- 학과 기업간의 상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로 대학·대학원이 이전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할 경우 교차·교사를 공동사용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 및 교사의 설립 기준을 완화함.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산업 단지내 및 인근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차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사용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차기준은 학생 1인당 교차기준면적으로 하고, 교차면적은 안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차기준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함.

- 자세한 내용 :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 02-2100-6946, FAX 02-2100-6173)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8일

### 유상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역유상산업의 진흥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산업발전법 일부개정령안(제2010. 11. 24 공포·시행령)에 따라 등록대상인 준대규모점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퍼마켓과 기타 등·서비스업종 중 합성소재업으로 한정하고, 준대규모점포의 해당인 체인사업 관련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

· 자세한 내용 : <http://www.mke.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02-2110-5142, FAX 02-503-9614)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13일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효율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학원 임용령식 개선과 교원 임용령식을 다양화 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학원제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충성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원초빙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의 기본사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 :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02-2110-6917, FAX 02-2100-6925)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13일

### 선박지원법 시행령안

-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교육활동수송용, 해양관광·레저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기능이 높은 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승무기준, 허가 시험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항공기조종사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승무기준은 비행시간으로 산정함에 따라, 승무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에 비행경력증명서를 추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크기는 일반비행선박(총톤수 또는 항정배수톤수)과 달리 최대 이륙중량으로 구분하고 있어, 승무경력 증명서 명시하는 사항에 최대 이륙중량을 추가함.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면접시험은 도입하지 않고 이론교육,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을 통하여 면허 취득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4급 한해서, 4급 한해서 자격 이상으로서 2~3년,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500시간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서 200시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5급 한해서 자격 이상으로서 1~2년, 자기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400시간 또는 수면비행선박 운항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

· 자세한 내용 : <http://www.mnt.go.kr/입법예고란>  
· 의견제출기관 : 국토해양부 선형정책과 (☎ 02-2110-6373/6374, FAX 02-504-2677)  
·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13일

-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의사항 : 법제처 대변인실(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2661, 홈페이지 : www.moleg.go.kr

2010년 11월 29일

법제처



김갑기  
국어국문학과 교수

### 달하나 천강에

#### 점입가경(漸入佳境)

성당의 시문학을 대표하는 詩聖 두보의 '시로 시를 논평'한 「희위육절」에 "유신의 글은 늙을수록 더욱 아름답다"고 했다. 물론 당시 철없이 나대는 신진들이 따먹지 않아 "치명할 강물은 만고에 마르지 않으나, 네가짓 것들은 육신과 함께 이틀조차 썩어질 것"이라는 독설의 발미였다. 그러나 유신의 문학작품은 나이 들수록 점입가경이나, 그의 글을 놓고 짓고 까부는 당시 문인들의 꼬락서니가 가관치도 않다는 촌철살인이나, 실로 그 무지가 또한 점입가경이란 반어법이다.

근자에 학내가 수련거린다. 신입총장 선출의 열풍 때문이란다. 출마 희망자가 열 분이라느니 열두 분이라느니 하니, 출마자마다 20여분 이상 교수들로부터 추천 받기도 바지런을 떨지 않으면 조련치 아니한 모양이다. 워낙 남다른 인품과 학덕은 물론, 두철한 교육자적 사명과 애교심의 발로일 줄 잘 안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후보등록이 끝난 결과, 다소 설왕설래가 없는바 아니지만, 8분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 적지 않은 수다. 행여 합중연회를 피하는 과격치야 있을까마는, 정녕 광명정대한 선전을 당부하며, 선임되는 분은 학교의 당면한 현실들을 바로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슬기를 보여야, 임기 후 앞장서서 먼저 풀풀 날리지 않게 될 것이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후보자들은 총장추천위원을 모시고 소견발표 과정을 거치고, 이후 총추위의 의결에 따른 3배수(아직은 미결이지만) 후보자를 선출해 재단이사회에 상정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사회는 물론, 총추위의 소임은 막중하다. 이에 우리 선인들의 인재 추천의 예를 들어 동국인이 하나 되고, 학운이 일신할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스승에게 "이 시대의 신하들 중에 누가 가장 현자입니까?"라고 묻자, 스승은 '포숙(鮑叔)과 자피(子皮)'라고 했다. 포숙은 관중(管仲)을 천거했고, 자피는 자산(子產)이라는 명재상을 천거했기 때문이다. 어디 중공뿐이라. 임진왜란 때 유성룡은 도체찰사로 전쟁을 총지휘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성호 이익은 그의 『징비록』을 다 읽고, 유성룡의 진정한 애국충정은 색목을 초월해 이순신 같은 명장을 추천한 것으로 그의 소임을 다했다 했다. 곧 이익은 "현자를 추천하면 높은 상을 받는 것이 옛 법도다. 신하 본인이 현자일 지라도 그가 죽으면 하던 일도 중단되지만, 추천한 이는 죽어도 그 어짐은 길이 남는다.(夫進賢受上賞 古之道也. 爲人臣苟使賢也, 賢沒而事熄, 進之以賢則人亡而賢猶存焉, 賞之所以無尚也)"(書懲愆錄後)는 글을 남겼다. 우리 동국대학교 여러 이사님, 그리고 총추위원 여러분이 사심 없고 현명한 판단으로 성스런 임무 수행을 다 할 때,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 위질 미래의 동국, 그야말로 긍정적 점입가경은 기대하게 될 것이다. 삼가 합장하여 축원한다.



보리수  
정병조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교수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은 인류의 기원 이래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영원한 물음표이다.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종교적 성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해답을 내렸지만 여전히 교과서적인 결론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불교 역시 이 물음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왔다. 불교의 해답은 '마음'이다. 마음이 인격의 주체이며, 삶의 나침반이다.

물론 그 마음에는 근원적 의식과 표면적 마음 등 다양한 중층(重層)구조가 있다.

이 불교적 마음을 천착하는 학파는 유식(唯識)불교이다. 이를테면 불교심리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선종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참구(參究)를 가장 의미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선사들이 말하는 견성(見性), 즉 스스로의 성품을 본다는 의미는 본래적 자신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내가 어느 부모를 선택하거나, 어느 땅에서 태어나는 일은 자의지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하고, 어느 전공을 공

부하고, 사회에서 어느 직장을 갖고, 어느 누구를 짝으로 만나 사느냐 하는 문제는 스스로의 선택이다. 따라서 인생은 운명적인 면과 스스로의 선택이 절반 정도씩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예부터 불교 공부를 '마음 찾는 일', 수행을 '마음 닦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선언한다. 이 화엄의 선언은 마음과 중생, 그리고 부처의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상으로 발전해 간다.

마음이 일체를 만들었다지만, 우리는 저 하늘의 흰구름을 만들 수 없다. 떨어지는 낙엽이나 흐르는 물 또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도대체 이 일체유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일체유심조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조물주라는 뜻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점은 각자의 마음먹기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시간, 60분이라는 시간단위를 증명할 수 없다. 지겨운 사람과 역겨운 말을 들어야 하는 60분과 사랑하는 이와 60분은 결코 동일하지 않은 법이다. 즉 마음은 시간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고 평가하는 잣대이다.

자신의 불행이 환경때문이고, 못한 부모 탓이며, 부도덕한 사회때문이라는 생각의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저주하며 그 삶을 마감한다. 그러나 나의 선의지로 난관을 개척하는 일이 삶의 보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는 이 험한 세상을 웃어가며 또 억울해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

어느새 달력이 달랑 한 장 남겨졌다. 다가오는 내일의 일은 어느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나의 주인, 내 인생의 핵심, 그 마음을 찾는 길, 또 그 근원적 마음이 시키는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금년 한해, 마음이라는 요술쟁이가 빚어 놓은 갖가지 허물과 과보를 반성하면서 또 새해를 기다린다.



동문칼럼  
김선일  
미술학과 78졸  
진성고등학교 교장

###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길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다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아니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다.

자연의 모습으로 태어나 자연의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인간뿐이며 교육으로 인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배우고 또 갖추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한 개인을 성공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 더 나아가 다음 시대까지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준다.

진정한 배움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중용(中庸)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라는 구절이 나온다. 사람이 하늘의 명을 받아 본성을 갖고 태어나며, 그 태어난 본성을 갈고 닦는 것이 도(道)이며, 그 도(道)를 갈고 닦는 것이 교(教)라는 의미

다. 즉, 사람이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성품을 따르고 확충시키는 것이 인간이 가야할 길이며, 그 길을 갈고 닦아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교(教) 즉, 가르침이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명을 따르고 그것을 갈고 닦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한창 배움의 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 진실한 인간으로 자란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양에서는 동양의 사상을 배우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동양의 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이 인간을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자연의 자연스런 운행에 인간의 욕망이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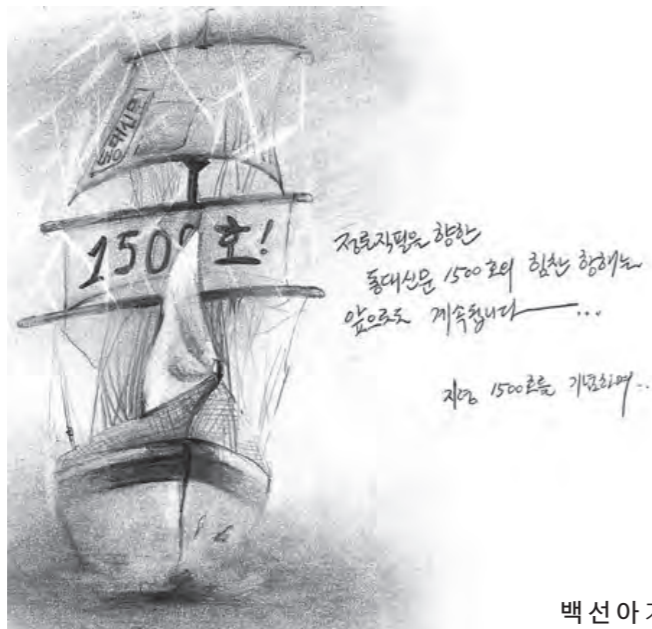
연은 자발적이고 근원적인 무위(無爲)라고 주장했으며, 자연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하늘의 명으로 받은 본성을 따르고 확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뒤늦게라도 깨우치고 다시 자연친화적인 동양의 사상을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 즉 인간이 가야할 길을 알고, 갈고 닦는 배움의 자세요, 그것이 바로 진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세이다.

배움이란 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배움의 교실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시대가 나아가 갈 방향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일 것이다.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창조해 내야 할 것이다.

### 만평



백선아 기자 amy@dgu.edu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 지향골로 만드니...**

# 동옥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옥식품 부산 와곡자연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인준)

문의 전화 :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자매품**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옥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려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와 "초코동옥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시론

최청락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인의 화합

1951년 3월 4일,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선의의 경쟁(競爭)으로 아시아인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제1회 아시안게임'의 광과르가 울려 퍼졌다.

당시만 해도 서구사회에 비해 근대화에 뒤쳐졌던 아시아는 이후 60여년간 여러 정치적·사회적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아시아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제 아시아는 더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닌 세계경제의 강력한 성장축이자 경제허브(Hub)로까지 평가받고 있을 만큼 비약적(飛躍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0년 11월 12일, 중국 광저우의 하이신 사범에서 개최된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됐다. 지난 16일간의 여정(旅程)은 이러한 아시아의 발전과 역량을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증명하기에 충분하였다.

'현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의 화합'이라는 목표로 치러진 이번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역대 최다

인 45개국 1만 4,000여명이 42개 종목에 참여하여 40억 아시아인을 스포츠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묶어주었다.

과거 냉전시대의 스포츠는 이데올로기 경쟁과 국위선양의 무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국가가 스포츠를 움직이는 주된 원동력(原動力)이었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스포츠에도 시장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導入)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스포츠 축제가 더 이상은 단순한 국력 재확인의 무대가 아닌 인류화합과 교류의 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인식 하에서 이제 역으로 스포츠가 국가를 움직이는 구도로 변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치열한 생존경쟁과 자본, 정보, 미디어 등의 글로벌화로 인해 더 이상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다. 그러나 언어, 문화, 국경, 종교, 이념, 세대를 모두 뛰어넘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포츠'가 아닐까

싶다.

스포츠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체력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게 해준다. 그 뿐 아니라 사회화의 한 형태로서 개인을 집단 속으로 또 집단을 문화 속으로 통합시키는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이나 사회정화적 기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유 역시 그러한 스포츠의 가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덕분일 것이다.

아시아는 유구한 세월동안 다양한 역사와 문화, 종교를 토대로 발전해왔다. 그런 만큼 앞으로 많은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겪어내야 함은 우리의 숙명일런지도 모른다. 현재까지도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북한과의 관계 역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에 '화합'이라는 단어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번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본보기로 삼아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

1500호를 맞이하는 동대신문의 각오

동대신문이 지령(紙齡) 1500호를 맞이했다. 이는 우리대학의 자랑일 뿐 아니라 국내 대학언론의 귀중한 기록이다. 창간 후 60년 동안 동대신문은 정론지필의 자세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대학의 공기(公器)로, 소통의 중심에 서서 대학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다. 동대신문은 독재정치, 민주화투쟁 등 암울했던 한국 현대사에서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지령 1500호 발행은 100년이 넘는 동국의 역사 속에서 동대신문이 가졌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동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양한 매체가 생겨남에 따라 대학 내의 소통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활자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것도 사실이다.

지령 1500호를 맞이하는 동대신문이 앞으로도 대학 내의 소통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혁신(革新)적인 태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사회의 대학 내에서 대학언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自己省察)이 필요하다.

앞으로 동대신문은 기성언론과 차별화되는 대학언론만의 시각으로 사회와 대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더불어 독자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동국 구성원들의 의견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동대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대신문은 창간 이래로 '대중언론 창출'을 위해 달려왔다.

동대신문 기자들은 오늘도 동국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叱責)과 격려(激勵)를 바란다.

학생회 선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있어야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2011학년도 중앙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選舉)가 오늘(29일)부터 3일 간 학내 곳곳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중앙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대부분 단일 후보자가 지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후보자가 없어서 당번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단과대도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학생 자치(自治) 기구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0.28%로 매우 저조(低調)했다. 제 4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 총학생회는 우리대학 1만 3천여 명 학생의 대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과대 학생회 선거도 마찬가지다. 학생회는 본인과 별개라는 생각으로 발생하는 무관심한 태도는 옳지 않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을 파악하고 소신껏 투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 자치 선거는 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지표다. 대학당국이나 학생대표에 대해 이리저리러구 이야기하기에 앞서 학생 스스로가 학생 자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부터가 학생 자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기대해 본다.



메아리

이지연 기자  
ly88918@dongguk.edu

결자해지(結者解之)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도 되고,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 문제의 해답을 제일 잘 안다는 뜻도 된다.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는 말이 나온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 이 말을 쓴다. ▲23일 오후, 서해안 연평도 인근에 북한에서 발사한 포탄 100여발이 떨어져 폭발했다. 이 중 수발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2명

과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것은 물론 민간인 3명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한 사태다. 더불어 민간인 사상자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흘만인 지난 26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토에 직접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며 "말로 경고한 때는 이미 지나갔다.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가겠다"는 엄포를 이어갔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식의 태도다. 책임전가에 한 발짝 더 나가 '전쟁으로 단호히 맞서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사태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적만하장식 태도다.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이번 포격은 휴전상태에서 우리 영토를 공격하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한다. 더구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중대한 범죄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전쟁 중이라도 상대방 국가와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준칙이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납치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듭을 묶은 자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매듭을 가장 잘 풀 수 있고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측도 북한이다. 북한은 더 이상 적만하장식의 태도가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훈우, 편집장 최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60-4907

21세기 디지털 정보화시대 필수 자격증
MOS ICDL 컴활1·2급 GTQ1급(그래픽국가공인자격)
교육시간표
전산원 MOS Master 및 ICDL·GTQ 교육과정 특징!!
A주완성, 시험합격률 96.7%
(회계장학기) MOS 97.8, ICDL 95.5
과목당 시험응시료 환인(GTQ 국가공인자격증 제외)
교재 무료제공
최정단 실습교육관강원비
교육후 전산원 교육철소에서 시험 중시
MOS, ICDL, GTQ 공인시험센터 운영
교육비
가. MOS(2007버전) MASTER과정 : 160,000원(교재4권 포함)
나. ICDL과정 : 130,000원(교재 포함)
다. GTQ1급과정 : 160,000원(교재포함)
라. 컴활1급과정 : 160,000원(필기·실기, 교재2권 포함)
마. 컴활2급과정 : 130,000원(필기·실기, 교재2권 포함)
특강신청방법 : 전산원(http://www.ducsi.ac.kr) 또는 동국대학교(http://www.dongguk.edu) 홈페이지 전산원 학사서비스팀(해화관5층)
접수기간 : 2010. 11월 15(월) ~ 12월 17(금) 수강료 납부 선착순.
수강료납입계좌 : 신한은행 140-005-535222 (예금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특강강의실 : 전산원 LAB 실습실 (해화관 6층)
문의처 : 02-2260-3522 또는 전산원 학사서비스팀(해화관 5층)

금주의 식단
월(11/29) 삼산적구이(2200)/고추장불고기(2000)/돈가스(2500)/뚝배기담도리탕(2200)
화(11/30) 김밥(2200)/떡갈비(2000)/피자돈가스(3000)/불고기주먹밥(2500)
수(12/1) 계란말이(2200)/소세지구이(2000)/스파게티(3000)/돈삼겹두루치기(2200)
목(12/2) 참치우거지저지(2200)/불고기(2000)/치킨가스(2500)/중국식볶음밥(2200)
금(12/3) 비엔나볶음(2200)/돈육고추장불고기(2000)/모듬가스(3000)/체육비빔밥(2200)
월(11/29) 간통육(2200)/콤비카스(3000)/삼겹살비빔밥(2200)/데리야끼치킨담(2200)
화(11/30) 제육순대볶음(2200)/치즈돈가스(3000)/볶음밥(2200)/김치불고기담(2200)
수(12/1) 안동찜닭(2500)/돈가스(2500)/해물담(2200)/참치볶음밥(2200)
목(12/2) 비엔나볶음(2200)/할박스테이크(3000)/날치알볶음밥(2200)/불고기담(2500)
금(12/3) 삼산적구이(2200)/고구마돈가스(3000)/체육담(2200)/양송이담(2200)
월(11/29) 쭈삼불고기담(2200)/치즈돈가스(3000)/버섯담(2200)
화(11/30) 제육떡볶음(2200)/치킨가스(2500)/짬뽕담(2200)
수(12/1) 치킨굴소스담(2200)/스팸기치짜개(2500)/돈삼겹두루치기(2200)
목(12/2) 체육담(2200)/피자돈가스(3000)/담고기비빔밥(2200)
금(12/3) 오징어담(2200)/뚝배기담도리탕(3000)/짬뽕볶음밥,군만두(2200)
월(11/29) 돈육콩나물담(2200)/피자돈가스(3000)/잡채담,군만두(2200)
화(11/30) 치킨굴소스담(2200)/쇠고기국(2500)/공부리담(2200)
수(12/1) 짬뽕담(2200)/칠리돈가스(2800)/치즈카레볶음(2200)
목(12/2) 버섯담(2200)/부대찌개(2500)/달걀비빔(2200)
금(12/3) 체육비빔(2200)/치즈돈가스(3000)/김치볶음(2200)



## 드넓은 서울 한강 창공(蒼空), 펼쳐지는 '낙조(落照)예술'에 덩뵙 취하다



▲ 흔히 바다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재갈매기 또한 이촌한강공원-중랑천에서 관찰할 수 있다.

겨울 들머리. 낙조의 예술이 한강에서 펼쳐진다. 이맘때면 저마다 어깨에 사진기를 걸쳐 메고 한강에서 무언가를 사진기에 담기 위해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이 그토록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겨울 철새다. 올해도 예외란 없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을 비행하다 온 겨울 철새의 시대가 지금 도래(到來)했다. 사진가들이 겨울 철새를 담기 위해 이토록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철새가 서울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시금 푸른 하늘을 향해 까만 점으로 사라진다. 펼쳤다, 뭉쳤다, 다시금 흩어지고 모이고……. 겨울 철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군무(群舞)의 미는 가히 장관(壯觀)이다. 지금부터 겨울의 진객(珍客), 철새를 만날 수 있는 서울 탐조(探鳥)여행 코스 4곳과 철새관람요령을 소개한다.

### 쉽게 볼 수 없는 철새, MUST HAVE ITEM을 소개한다!

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새를 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절대 철새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 새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기에 새를 야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탐조객으로서의 자세다.

②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는 배울 10배 울이하의 쌍안경이, 바다나 호수 등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20~25배울의 망원경이 적당하다.

③ 새를 관찰하면서 조류도감을 준비해 같이 대조한다면 금상첨화! 보다 생생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④ 관찰일지 만들기. 그날 본 새를 관찰 일지에 기록해 나만의 조류도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⑤ 복장 또한 놓칠 수 없다. 눈에 잘 띄는 붉은 색과 흰색 계통의 옷은 새들에게 경계심을 갖기 쉬운 조건이다. 겨울철에는 갈대숲에서 관찰하는 경우가 많기에 갈색이나 초록색 계통의 옷이 무난하다.

⑥ 새들은 후각에도 민감하다. 진한 화장품과 향수도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⑦ 철새도래지는 주로 바다, 강, 저수지 근처에 인접해있으므로 장화는 꼭 챙길 것.

가을을 지나서 겨울, 팬스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럴 땐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고개를 젓혀 파란 창공을 바라보자. 높고 넓은 한강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면 까만 점들이 펼쳐지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멀고 먼 원거리 여행을 뒤로하고 잠시 한강에 지친 날개를 고이 접은 철새들 덕이다. 매년 한강을 찾는 철새는 연 2만2000마리로 추산(推算)되며 텃새와 철새를 합쳐 56종의 새가 날아온다.

얼마 전 군산에서 열린 군산세계철새축제를 비롯해 지금 열리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철새축제까지 사실 유명한 철새도래지(渡來地)는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어 막상 가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 서울에서도 철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광나루한강공원-암사생태공원, ▲이촌한강공원-중랑천, ▲밤섬-여의도한강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난지한강공원 과 같은 겨울 탐조 코스 4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또한 서울시는 다음달 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상택시 탐조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택시를 타고 겨울 철새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선정한 철새탐조코스 네 곳을 만나보자.

▲대자연 본연의 풍광이 고스란히, 광나루한강공원-암사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은 서울시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규모의 갈대가 조성(造成)되어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풍광(風光)을 보존해두었다. 또한 암사생태공원은 콘크리트 호안(湖岸)을 걷어내고 자연형 수변사면(水邊斜面)으로 복원 해 물과 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 볼 수 있는 관찰종으로는 ▲흰꼬리수리(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제243호) ▲참수리(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제243호) ▲큰고니(멸종위기2급, 천연기념물 제201호) ▲말뚝가리(멸종위기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호) ▲새매(천연기념물 제322호)가 있다.

※찾아가는 법 : 천호역 1번 출구(500M), 암사역 4번출구(700M)에서 하차

▲화려한 원앙이 노니는 모습이 백미인, 이촌한강공원-중랑천

이촌한강공원은 중랑천교와 원효대교 사이 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호안과 주변을 따라 갈대, 억새, 코스모스가 철따라 피어나서 주로 산책코스 이용된다. 또한 중랑천은 철새보호구역으로 겨울철 철새의 약 14%를 차지한다. 특히 이 부근에서는 가장 화려한 모양을 뽐내는 원앙이 암수 노니는 모습을 백미(白眉)로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황조롱이, ▲재갈매기 등을 관찰 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 이촌공원은 이촌역 4번 출구(800M), 용산역-신용산역에서 한강대

교 방향 1km 거리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은 중앙선 응봉역 하차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한강 생태계의 보고, 밤섬-여의도한강공원

밤섬은 한강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철새 도래지로 정평(定評)이 나 있다. 뒷밤섬, 아랫밤섬, 서강대교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섬으로 나뉜 밤섬은 도시 속 철새 도래지로 매년 70종 약 3000마리의 철새가 날아온다.

그러나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때문에 밤섬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서강대교, 마포대교의 인도교와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여의도 플로팅스테이지 60m 아래쪽에 밤섬 철새 조망대가 생길 예정이며,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상택시 겨울철새 탐조이벤트가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수상택시를 타고 한강을 돌며 철새를 탐조할 수 있다.

주요 관찰종으로는 ▲흰꼬리수리(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제243호) ▲참매(천연기념물 제322호) ▲털발말뚝가리(멸종위기2급) ▲말뚝가리(멸종위기2급)이다.

※찾아가는 법 : 여의나루역 2번출구에서 도보로 20분 거리

▲기러기 떼 편대 비행이 장관인, 강서습지생태공원-난지한강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습지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난지생태습지원은 우기 이외에는 담수가 잘 되지 않아 한강물을 이용해 조성한 곳이다. 이 일대에는 우리나라 철새의 상징이라 불리는 기러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V자를 이루며 나는 기러기 떼 편대비행(編隊飛行)이 장관이며 조류 조망대 또한 마련되어 있다.

주요 관찰종은 ▲큰기러기(멸종위기2급) ▲새매(천연기념물 제322호) ▲털발말뚝가리(멸종위기2급) ▲말뚝가리(멸종위기2급) ▲새매(천연기념물 제322호)다.

※찾아가는 법 : 방화역 1·2번 출구로 나와 6번 마을버스를 타고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하차, 난지생태습지원은 6호선 마포구청역 7번 출구이용

가을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겨울을 예고라도 하듯 지금 서울 하늘은 철새로 가득하다. 우리가 날지 못하는 파란 하늘을 보란 듯이 비행하는 철새의 군무는 가을의 끝물을 아름다운 수채화로 표현해낸 한 폭의 그림만이 아니다. 이 그림은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다. 타성(惰性)에 젖은 일상에 이끌린 당신, 소소한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당장 카메라를 어깨에 짊어내고 하루나마 철새가 자아낸 낭만을 사진으로 담아 간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